





18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3994.51		901.33
	(-61.90)		(-9.74)
<hr/>			
	금리 <small>(국고채 3년)</small>		환율 <small>(원·달러)</small>
	2.967		1479.10
	(-0.029)		(-0.70)

# 현대차그룹, R&D·제조 내실 다져... ‘SDV 체계전환’ 가속

## 2025 정기 임원인사

R&D 본부장에 만프레드 하러  
제조부문장 정준철 부사장 승진  
사장 승진 4명 등 총 219명 인사

현대자동차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기업 전환과 연구개발(R&D), 제조 부문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현대차그룹은 18일 2025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R&D본부장에 만프레드 하러 사장을 임명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핵심 분야의 리더십을 교체했다.

만프레드 하러 사장은 2024년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이후 R&D본부 차량개발담당 부사장으로서 제품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량의 기본성능 향상을 주도했다. 그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SDV 기술 확보에 나선다. 송창현 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 후임은 빠른 시일 내 선임할 계획이다.

하드웨어 영역에서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조부문장 정준철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다.

정준철 사장은 완성차 생산기술을 담당하는 제조솔루션본부와 수익성과 공



급망 관리의 핵심인 구매본부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승진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생산체계 구축과 로보틱스 등 그룹의 차세대 생산체계 구축에 주력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국내공장을 총괄하는 국내 생산담당 겸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새롭게 임명했다. 제조기술 엔지니어링에 정통한 현대생기센터 최영일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임명했다.

기아에서는 북미권역본부장 윤승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북미 지역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룹의 성과중심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계열사에서는 현대제철이 새로운 대

표이사 체제를 출범시켰고,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 대표이사는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루이지애나 제철소 프로젝트 등을 이끌 현대제철 사장에는 이보룡 부사장이 승진·임명된다. 서강현 현 현대제철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한다. 안정적 위기 관리 역량을 보인 현대카드 조창현 대표와 현대커머셜 전시우 대표는 나란히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장재훈 부회장은 현대차그룹 담당 부회장으로서 그룹의 전방위적인 미래 사업 및 기술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시너지 제고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민첩한 실행을 이끌어 간다.

사장 승진 4명 이외에도 부사장 14

명, 전무 25명, 상무 신규선임 176명 등 총 219명의 승진을 포함한 정기 임원인사도 이뤄졌다.

전체 239명의 승진을 실시했던 작년 임원인사대비 승진자 규모는 20명이 줄어 총 219명이 승진했다.

현대차그룹은 40대 차세대 리더 발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지성원(47) 전무는 40대 부사장으로 발탁됐다. 상무 신규선임 대상자 중 40대의 비율도 지난 2020년 24% 수준에서 올해 절반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80년대 생 상무로는 조범수(42) 현대차 외장디자인실장과 권혜령(45) 현대건설 플랜트기술영업팀장 등 총 12명이다.

현대차그룹의 싱크 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HMG경영연구원 원장으로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과 신용석 교수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의 위기를 체질 개선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인적쇄신과 리더십 체질변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며 “SDV 경쟁에서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인사와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미국과 일본 간의 엇갈리는 통화정책 국내 영향 살펴봐야”

구윤철 부총리, 시장상황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간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제자리를 찾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덕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예정된 일본 중앙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향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기준금리의 인상 쪽에 무게를 두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19일 실제 인상될 시 이는 이달 초 금리 인하를 단행한 미국과 다른 행보인 탓에 시장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 시장참가자 다수는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정부, 5년내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만든다

##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유니콘·데카콘 기업 50개 육성  
벤처투자 연 40조 시대 열기로  
엔비디아 GPU 일부 전략 배분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 유니콘·데카콘 기업 50개도 만든다.

‘모태펀드 2.0 시대’에 맞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벤처투자 연 40조원 시대를 연다.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국가 차원의 ‘벤처 혁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기업가정신을 전방위로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를 통해 확보할 5만장 규모의 AI 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연구 개발, 실증을 위해 전략 배분한다. ABCDEF 등 ‘6대 전략산업’, 즉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콘텐츠&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actory(첨단 제조)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4강 반열인 ‘벤처투자 연 40조원 시대’를 위해 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재정 출자를 확대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전략을 강화한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태펀드 존속기간도 연장됐다.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역창업 거점허브인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하고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창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한다.

모태펀드를 미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해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를 강화한다.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000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단계별 경영으로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늘린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소셜벤처 개념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제도와 연계해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등 ‘소셜벤처법’을 제정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메트로 한줄뉴스



▲장동혁, 여성단체협의회 창립기념식서 “당에 여성 위한 문 만들 것” /사진 뉴스1  
▲조국혁신당, 직설위원회 ‘레드팀’ 위원장 위촉장 수여

▲‘공 GPT 국장’ 오류 논란 송미령 직접 해명… “질답 과정 일부 혼선”  
▲행안장관 “폭설 불편 없게” 대책 점검…초고층 건물 방문도

▲김문수, 한동훈 손잡고 “우리 당 보배, 자르면 안 돼”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청래 면담…“먼길 가기 위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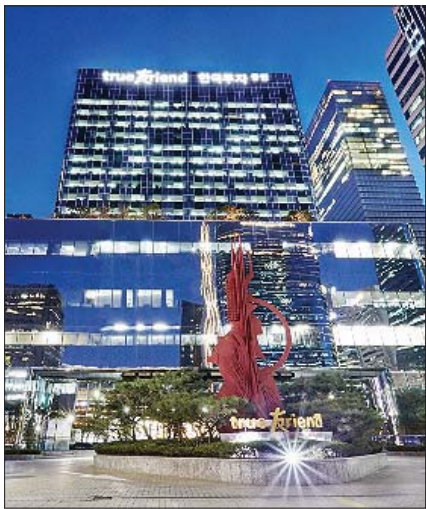
# 원금보장 투자상품 첫 등장… 금융투자 산업 퀀텀점프 기대

## 한국투자증권, IMA 1호 출시

2년만기, 최소 가입금액 100만원  
23일까지 영업점·홈피 등서 판매  
만기시 손실뎌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은행 ‘머니무브’ 본격화 가능성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원금은 사실상 보장되는 종합 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나왔다. IMA는 국내 금융투자 산업이 퀀텀 점프하는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처럼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 예·적금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의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로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출시, 판매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IMA 상품은 증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한국투자증권

권사가 고객 자금을 모아 기업금융에 직접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고객과 나누는 구조의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 IMA 사업자로서 1호 IMA 상품의 판매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이번에 출시된 1호 IMA 상품은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설

계됐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개인별 투자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판매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로,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만기 이전에는 중도 환매가 제한되며, 만기 시점의 자산 운용 성과와 자산 가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투자자가 만기까지 상품을 보유하면, 원금 이하로 손실이 나도 증권사가 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IMA 상품은 예금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가 부도·파산하는 경우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운용 자산은 기업 대출과 회사채, 인수 금융 등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 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장금리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

웠던 비상장·사모 영역의 대체 투자 자산에도 분산 투자해,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기업 금융과 모험 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객군과 만기, 위험 수준을 세분화한 다양한 IMA 상품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IMA는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라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 인프라”라며 “발행어음 1호에 이어 IMA 1호 사업자로서 시장을 키우고 기준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도 ‘1호 상품’ 설계안을 당국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배당형 IMA 1호 상품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배당형·프로젝트형(혁신성장 기업 편입) 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인 잔고 확대에 집중하기보다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글로벌 투자 역량과 벤처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IMA 2호·3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IMA를 통해 상품 구조를 세분화하며 기존에 강점을 보유했던 자산관리(WM) 부문과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객마다 서로 다른 위험 선호도와 기대 수익률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보다 정교한 IMA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IMA시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들 두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3배까지 IMA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올해 3분기 말 자기자본 기준 한국투자증권은 최대 약 36조원, 미래에셋은 약 31조원까지 예탁금을 유치할 수 있다. 자기자본 규모가 달라지면 유치 한도는 더 늘거나 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지정 승인을 대기중인 NH투자증권이 가세(약 25조원)하면 산술적으로 내년에만 약 90조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 상품 시장이 열린다.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높아 은행 예·적금에서 증권사로 ‘머니무브’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년과 3년 만기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2.43%다. 5대 은행의 1년 만기 상품은 평균 연 2.84% 금리를 주고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몸집과 레버리지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IMA도입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차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규제가 그 대로라면서 레버리지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편과 함께 대형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규제(LCR) 확대와 정상화·정리계획(RRP) 도입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2010년 199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851조7000억원으로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레버리지 비율은 6.3배에서 9.2배로 상승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CAMPUS LIFE

교육과 연구 혁신이 생활이 되다

지난 6년, 연구혁신 기반 시 교육 시스템으로  
미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 온 우리 중앙은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교육과 함께 뛰어난 연구성으로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선도하겠습니다

■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

- 533명 전임교수 채용, 연구사업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1조 수주
- BK21 사업 18개, 선도연구센터(ERC, SRC) 6개, ICT 연구센터 4개, 중점연구소 3개 유치

■ 첨단기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 첨단 인재양성 체계 확립[시학과-사대학원, 산업보안학과-보안대학원]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사업[전자전기공학부 - 지능형 반도체대학원]
- 창의ICT공과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

■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 세계 6대륙 661개 대학과 학생교류, 연구협력 협정체결
- 혁신공유대학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실감미디어 인재 양성)

DO! THE BEST

중앙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5. 12. 29. (월) ~ 12. 31. (수) 18:00까지  
<https://admission.cau.ac.kr> | 02)820-6393

2025관 청탄공학관 준공 예정

## 은행 3%대 금리 돌아왔다 증시→정기예금 ‘머니무브’

5대은행 예금잔액 두달연속 증가  
증시예탁금은 한달 새 7.5조 감소

개인투자자 자금이 은행권 예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은행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풀이된다. 고금리 환경으로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유동성 확보와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선 금리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은행의 11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971조98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965조 5689억원)과 비교하면 6조원 넘게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8월 954조 7319에서 9월 947조1696억원으로 감소한 뒤 10월 들어 965조5689억원으로 상승한데 이어 2개월 연속 이어졌다.

반면 증시 대기자금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말 77조9210억원으로, 한달 새 7조5449억원 감소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

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일본은행(BOJ)의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가 국내 증시 상승세를 제한한 영향이다.

예금금리가 증시 수익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은행의 예금금리는 1년만기 기준 기본금리가 2.90%까지 상승했다. 최고금리는 연 3.00%다. 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2.95%, 최고금리가 연 3.55%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난달 수익률은 각각 -4.40%, 1.36%에 그쳤고, 이달 들어서도 각각 3.39%, -0.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기본 금리기준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은 Sh수협은행의 ‘헤이 정기예금’이다. 헤이 정기예금은 연 3.00% 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과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는 각각 연 2.95%다.

금리가 가장 높은 적금은 Sh수협은행의 ‘Sh해양플러스저축(Zero)적금’으로 연 3.50%를 제공한다. 우리는 행의 ‘WON적금’은 연 2.95%,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적금’은 연 2.90% 금리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비용·일정관리 최대 변수… ‘KDDX 공동개발’ 방안 부상

방사청, 방추위서 사업 방식 논의  
기본설계 완료 후 후속 사업자 선정  
HD현대·한화 공동 시나리오 거론  
역할·책임 구분 명확화 핵심 과제  
美 해군 LCS·쥘왈트급 사례도 참고

약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공동개발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단일 국가 내 복수 조선소 참여 방식이 해외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난항을 겪은 전례가 있어,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한다. 방추위에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계약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공동개발 방안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KDDX는 해군의 차세대 주력 수상 전투함으로, 노후 구축함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형 국책 방산 사업이다.



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까지 포함하는 장기 사업으로 해군의 대공·대잠·대함 작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공동개발 방안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기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방식 모두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KDDX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으며, 기존 방산 관행대로라면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후속 단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방사청 안팎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개발 방식이 주요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다. 공동개발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나 패자 불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설계 권한과 책임 범위 설정, 비용증가, 일정 지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 해군은 2000년대 초반 약 280억 달러(약 33조 원)를 투입해 3000톤급 연안전투함(LCS)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경험하던 두 업체를 모두 선정해 두 가지 설계를 병행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프리덤급(LCS-1)과 인디펜던스급(LCS-2) 두 모델이 개발돼 실전 배치됐지만, 이후 운용 과정에서 상호 운용성과 작전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유지·정비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비용 부담도 커졌고, 당초 52척으로 계획했던 건조 물량 역시 32척으로 줄이며 사업 구조를 조정했다.

미 해군의 또 다른 사례로 꼽히는 DDG-1000(쥘왈트급 구축함) 역시 공동개발로 참여한 대형 함정 사업이다. 전기 추진체계, 신형 함형 설계 등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과정에서 통합 관리의 어려움이 불거지면서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이 발생했고, 초기 계획했던 32척 건조는 결국 3척으로 축소됐다.

방산업계에서는 KDDX 역시 단일 국가 내에서 복수 조선소가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공동개발 방식이 선택될 경우에도 사업 관리 부담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본설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후속 단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 업체가 사업을 독점하는 구조가 되면 국내 해양 방위산업 전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과거 장보고-Ⅲ 사업에서도 협력 설계 방식이 적용된 만큼 다양한 협업 시나리오를 검토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업 방식 논쟁이 아니라, 2년 가까이 지연된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정책적 판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김범석 불출석’ 논란 확산… 與, 4개 상임위 ‘쿠팡사태 청문회’ 연다

與 “국민기만”, 연석 청문회 추진  
국토위·과방위·정무위·환노위 참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 착수  
외국인 대표 답변 여론 악화  
김범석 의장 출석 요구 커져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및 각종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데다, 책임있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으면서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당 정책조정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국토위·과방위·정무위·환노위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 과방위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를 했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하고,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 출석해서 국민을 기만한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전날 과방위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냐는 비난이 일었다. 김범석 의장은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는 사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쿠팡 한국법인 전 대표인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또 박대준 전 대표 후임으로 임명된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와 브렛 매티스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나와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거나 “장모님” 정도의 한국어만 한다”고 답해 ‘한국 국회를 조롱하냐’는 여론까지 나왔다.

게다가 로저스 대표는 “감사하게도 가장 민감한 정보인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실질적 최고책임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과 보상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무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 등 연속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국토위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다. 과방위와 환노위를 중심으로는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문제, 퇴직금 문제까지 청문회에서 다룰 작정이다.

다만 정무위는 다른 3개 상임위와 달리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쿠팡에 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협조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 황성업 신영증권 대표, 제7대 금투협회장 선출

결선투표서 57.36% 득표로 당선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41.81%

금융투자협회 신임 회장에 황성업 신영증권 대표가 당선됐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정회원사 399개사 중 88.11%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황 대표가 득표율 57.36%를 기록해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41.81%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로 치러졌으며, 결선에서 황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황 신임 회장은 1963년생으로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재무학 석사(MSF)를 취득했다. 1986년 대우전자에 입사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뒤 1987년 신영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조사부, 법인영업, 투자은행(IB) 부문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자산운용본부장, 법인사업본부장, IB부문장, 부사장을 거쳐 현재 신영증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을 ‘연결’로 정의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CEO는 ‘Connecting Executive Officer’,

사람을 연결하고 업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연결하는 자리”라며 “금투협이 산업을 잇고 신뢰를 회복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국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은행 중심 구조로는 한국경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며 “자본시장 중심의 대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리고 공감대를 넓혀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 언론과의 장기적 소통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韓, AI기술 자립이 국가 경쟁력 핵심”

대한상의, 배경훈 부총리 조찬간담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빠른 추격과 전략적 접근이 향후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인 AI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술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 강연에서 “미국은 빅테크 중심으로 AI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국은 소프트웨어상의 AI를 물리적인 세계로 끌어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20위권 AI 모델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의 모델”이라며 “중국이 물리적 AI(피지컬 AI) 강국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상위 20위권 AI 모델 대부분이 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직 존재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AI 모델을 다수 보유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승용 기자



# AI 3대 강국의 가능성을 키우는 LG

다양한 가능성이 AI를 만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LG는 AI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만들어갑니다



**LG디스커버리랩**

청소년 대상 연간 3만 3천명 이상, 체험형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LG에이머스**

청년 대상 연간 5천명 이상, 산업데이터 활용한 실전형 AI 전문가 육성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교육부 인가, 글로벌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사내 대학원 학위과정

# 미래, 같이





# ‘친명 3인 vs 친청 2인’ 구도로 민주당 권력지형 변화 갈림길

## 내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친명계 강득구·이건태·유동철  
친청계 이성운·문정복 후보 등록

친명 후보 2명 이상 선출되면  
정청래 대표 체제 견제 가능

내년 1월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대 친청(친정청래)계 3대 2 구도로 싸였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히는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는 약 6개월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계파 갈등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정작 후보들은 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17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받았다. 친명계 강득구·이건태 의원

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친청계 이성운·문정복 의원 등이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총 후보 수가 7명 미만이라 선거는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만 할 예정이다. 5명 중 3명이 최고위원으로 뽑히게 되며, 권리당원·중앙위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한다.

친명계 후보를 살펴보면 우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사법 리스크 대응이 앞장선 인물이다. 강득구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위원장은 지난 달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대표 측과 대립한 바 있다.

친청계 후보로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조직사무부총장, 법률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은 문정복·이성운 의원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양 계파의 세력 구도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로 사퇴한 3명(전현희·한준호·김병주 의원)을 제외하면 선출직으로 이언주·황명선 의원이 남아 있다. 당 대표 지명직으로는 서삼석 의원과 박지원 평당원이 있다.

현재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하면 총 3명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친청계가 모두 입성해야 과반을 달성해 정 대표 주도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친명 후보가 2명 이상 선출되면 정 대표 체제에 실질적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정 대표 연임설이 불거진 만큼 이번 선거가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 李 대통령 “다가오는 지방선거서 통합된 자치단체장 뽑아야”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 오찬  
수도권 과밀화 대안으로 통합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양 지역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간담회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부수석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의 인사말 후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다가오는 지선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이날 참

석한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참석한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나 특위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급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당에서 지방선거 공천 밀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도 공천 신청 등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통합이 내년 지선 전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실무선의 조율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 “통일교 특검법 구성·내용 대체로 일치된 교감 나뉘”

국민의힘-개혁신당, 특검 논의 속도  
세부사항 최종 조율 후 공동발의 방침  
與 추진 ‘2차 종합특검’ 방어 용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관련 의혹수사를 위한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여대야소 상황이라 두당이 힘을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특검법 통과를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통일교 특검 추진은 여권이 내놓은 ‘2차 종합특검’을 방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도입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개혁신당 등) 양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전체적인 특검 구성의 틀과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된 교감을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40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이번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의 규모나 수사 대상은 이야기가 상당히 잘됐다”며 “송 원내대표가 말한 쌍특검 부분을 통일교 특검 안에 민중기 특검의 행태도 넣을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양당은 세부 사항 최종 조율 후 조만간 특검법 공동발의에 나설 방침이

다. 가장 큰 쟁점인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없는 제3당인 자신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당은 우선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률 전문가 추천안을 바탕에 두되, 추천을 받은 다수의 후보자를 줄이는 작업을 개혁신당이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면 간만에 보는 ‘보수정당 연대’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두당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의석수가 110석(국민의힘 107석·개혁신당 3석)에 불과하다.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내란 잔재 청산 방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강조하고 있다. 공개 석상에서도 수차례 2차 종합 특검을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지 않은 채 2차 종합특검만을 고집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예진 기자

## 현재, ‘내란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尹 이후 계엄 관련자 첫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현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계엄 해제를 요구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를 지휘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계획을 인지하고도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실행·지원한 점을 파면 사유로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출입이 차차 차단되면서 본회의 개회가 지연되고

일부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 가야 했던 점도 현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는 이 같은 상황이 “국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점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이 같은 행보가 조 청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현재는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고 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이후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현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현재는 이날 경찰청장 탄핵심판을 끝으로 12·3 내란 사태 가담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4월에 각각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서예진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나에게 이로운 AI, 없을까?”

라는 당신의 고민에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어렵기만 한 AI가 아닌.  
고객의 일상에 손쉽게. 쓸모 있게.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AI를.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AI롭게.

# 나에게 이롭게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AI 은행원**

서울 중구 서소문(시청역 9번 출구)에 위치한 AI 브랜치는  
AI 기술을 적용한 금융 업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센터 (1577-8000, 평일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사전심사필 제2025-11231-1호 (2025.03.26~2027.03.25)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 “보상 앞서 방어비용 보장… 배상책임보험 4.8% 벽 뚫어야”

손보시장 배상책임보험 비중  
韓 4.8%, 美 20%에 한참 뒤져  
법원비용 등 방어비용 지급 필요

국내, 분쟁 길어지면 보상여력 줄어  
법률서비스 ‘특약’ 형태 방안 제시

국내 손해보험 시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4.8%에 그치면서 미국(20%) 등 주요국 대비 시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 보상 중심 인식에서 벗어나 분쟁 대응에 드는 ‘방어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로 바뀌야 자발적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재물보험 비중이 9.3%, 배상책임보험이 4.8%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 재물보험 36%, 배상책임보험 20%로 책임보험이 위험보장 시장에서 크게 자리 잡았다. 미국 배



Chat GPT가 생성한 배상책임보험 이미지.

상책임보험료 규모는 2023년 기준 262조원(재물보험 471조원)이다.

배상책임보험 활성화의 핵심 고리는 ‘방어비용’이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국내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배상책임 사고는 최종 배상금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실관계 확인, 증거 확보, 법률 대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선행한다. 미국은 법원 비용 등 방어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되 배상책임 손해 보상한도와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다. 반면 국내는 방어비용이 보상한도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길어질수록 실제 보상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배상책임보험에 법률서비스보

험을 ‘특약’ 형태로 결합해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된다. 기존 법률서비스보험 단독 상품은 약관이 어렵고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또한 주로 대면 채널 판매가 필요 한데도 수수료가 낮아 지속 판매가 어려웠다. 만약 배상책임보험과 결합하면 가입 동기를 높이고 분쟁 대응 수요를 보험 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개인(일상생활) 배상책임은 ‘고액 사고 대비’가 과제로 꼽힌다. 국내 판매 한도는 통상 1억~3억원이고, 고액도 최대 10억원 수준에 머문다. 소송문화 확산과 판결금액 고액화 가능성에 대비해 더 높은 한도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제조물배상책임 분야에서는 리콜보험 특약 부가가 해법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리콜은 BMW 29만대(2018년), 현대·기아차 33만대(2022년), 김치냉장고 278만대(2020년) 등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가정용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회수·교환 등 리콜 비용을 담보로 편입하면 기업의 비용 불확실성을 낮추고 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법·제도 변화에 맞춘 약관 정비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시행, 금융권 책무구조도(2024년 7월) 도입, 상법 개정(2025년 7월) 등으로 임원 책임이 강화되는 흐름을 반영해 보장 항목 확대와 약관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영문 약관을 그대로 쓰는 경우 국내 법 적용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국내 판례와 실정에 맞춘 국문 약관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보험개발원은 “재물보험은 기후변화 대응, 지수형 보험 도입 등을 통한 시장 확대를 모색 중”이라며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자발적인 수요 증가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카드사, 車 할부금융·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카드론 위축’ 새 먹거리 찾아 나서

전업카드사 6곳 車 할부금융 9.7조  
현대, 개인사업자 대출 판매 재개  
삼성카드도 대출상품 출시 검토중

정부 대출 규제로 카드론이 위축되자 카드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확대하는가 하면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수익성 재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업카드 6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9조7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9조6909억원이었던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은 같은 해 9월 말 9조3862억원, 12월 말 9조4709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다 올해를 기점으로 3월 말 9조5776억원, 6월 말 9조7422억원까지 다시 확대됐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가 지난 3월 말 2조8716억원에서 6월 말 3조781억원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자산을 확대했다. 롯데카드는 같은 기간 1조597억원에서 1조1679억원으로, 하나카드는 1조500억원에서 1조785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 자산 확대에 나선 배경은 규제 강화로 위축된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카드론이 정부의 지난 6·27 대책 이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된 반면, 자동차 할부금융은 DSR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카드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영역도 넓히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2022년 종료했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판매를 최근 재개했다. 삼성카드 역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카드론과는 별개 상

품으로 보통 대출 기준은 사업자의 신용등급, 사업 연한,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전 분기 7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개인사업자 대출은 3분기 2조1000억원 늘어 약 3배 급증했다.

한편, 비카드 수익 부문을 확대하더라도 정부의 규제와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여신금융포럼’ 축사를 통해 “사업자 대출에 가맹점 매출 추이·가맹점 주카드 사용 패턴 등을 활용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시행 중인 카드사의 금리는 현대카드 15.95%, 우리카드 13.78%, KB국민카드 13.77%, 신한카드 13.72%, 비씨카드 13.13%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삼성물산, 4700억 호주 HVDC사업 수주

빅토리아주-타즈메니아주 연결

지중·해저 총 345km 설비 시공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고압직류 송전 설비(HVDC)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호주 에너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호주 연방정부와 빅토리아·타즈메니아 주정부가 설립한 마리너스링크(Marinus Link Pty Ltd)가 발주한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우드 지역과 타즈메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 해저 255km 길이 750MW 규모의 초고압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EPC)하는 사업이다.

마리너스링크 HVDC 사업을 통해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유한 타즈메니아주와 빅토리아주를 비롯한 본토 지역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왼쪽부터)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과 마리너스링크 최고경영자(CEO) 스테파니 맥그러거 사장, 마리너스링크 샌드라 갬블 회장이 고압직류 송전 설비(HVDC) 사업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

양방향으로 안정적인 송전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현지 인프라 전문 건설사인 DTI(DT INFRASTRUCTURE)와 조인트벤처(JV)를 구성해 지중 케이블 설치에 필요한 토목공사와 변환소 공사 패키지를 수주했다. 총 94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중 삼성물산 지분은 50%인 약 4700억원 규모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서울·인천에 ‘KB희망금융센터’ 문열어

KB국민은행, 취약계층 재기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개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KB희망금융센터는 영업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KB국민은행 상도동지점 2층과 인천 연수 중앙지점 3층에 마련됐다. 우선 2개 지점을 개소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 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위원

회,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지난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한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국EAP협회와 연계된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해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 45주 연속 상승세

지난주 대비 0.18% 상승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12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같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 첫째주부터 45주 연속 오르고 있다.

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

는 지역과 대단지·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강남에서는 동작구(0.3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송파구(0.28%)는 가락·문정동 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4%)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0.31%)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31%)는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24%)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는 0.10% 올라 전주(0.09%)보

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남 분당구(0.43%)는 서현·분당동 선호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43%)는 풍덕천·성북동 역세권 위주로, 과천시(0.38%)는 원문·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상승해 전주(0.1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초구가 0.58% 올랐고, 강동구와 강남구가 각각 0.23%, 0.20%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수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전셋값은 0.09%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Cooperation 협동 • Collaboration 협력 • Connectedness 연결

# 다함께 있습니다. 성신에 있습니다!

생각과 생각을 잇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잇습니다.  
다함께 이어진 세상, 성신에 있습니다.



바이오신약과학부  
손민경

법학부  
이하연

소비자산업학과  
김하늘

소비자산업학과  
추예솔

## 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신입학 모집

정시모집 | 2025. 12. 29.(월) 11:00 ~ 12. 31.(수) 18:00

추가모집 | 2026. 2. 20.(금) 11:00 ~ 2. 25.(수) 14:00

입학상담 | 02-920-2000 홈페이지 | ipsi.sungshin.ac.kr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 SK하이닉스, 5세대 D램 ‘인텔 DC’ 인증

업계 최초

최신서버 플랫폼 호환성·품질 검증  
고용량 DDR5 모듈 기술력 인정받아  
“글로벌 메모리 시장 리더십 공고히”



SK하이닉스 1b 32Gb 기반 256Gb DDR5 RDIMM.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10나노급 5세대(1b) 32Gb 기반으로 구현한 현존 최고 용량의 서버용 D램이 업계 최초로 인텔의 최신 데이터센터 인증을 획득했다.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5세대(1b) 32Gb 기반 고용량 서버용 D램 모듈 제품인 256GB DDR5 RDIMM을 인텔 제온 6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한 인텔 데이터센터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증 절차는 미국에 위치한 인텔의 첨단 연구시설인 어드밴스드 데이터센터 디벨롭먼트 랩에서 진행됐다. 이 곳에서 SK하이닉스는 수차례의 다면 평가를 거쳐 이번 제품이 제온 플랫폼

과 결합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호환성, 품질을 갖췄다는 결과를 얻었다. 회사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10나노급 4세대(1a) 16Gb 기반 256Gb 제품에 대한 인증도 받은 바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서버용 CPU 시장을 선도하는 인텔의 최신 서버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업계 최초로 검증받으며 당사의 고용량 DDR5 모듈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급증하는

서버 고객들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차세대 메모리 시장 리더십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AI 인프라에서 메모리는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AI 추론 모델들이 단순 답변 생성을 넘어 복잡한 논리적 사고 과정을 수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고용량·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시

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제품이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개발진은 “이번 제품을 탑재한 서버는 32Gb 128GB 제품을 채용했을 때 대비 16% 추론 성능이 향상된다”며 “32Gb D램 단품 칩을 활용한 설계로 전력 소모량도 기존 1a 기반 16Gb 256GB 제품보다 최대 약 18%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성비를 중시하는 데이터센터 고객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 이상권 부사장(DRAM 상품기획 담당)은 “서버용 DDR5 D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면서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서 고성능·저전력·고용량 메모리 수요 확산에 적극 대응해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고려아연, 울산 등 1.5조 투자… 공급망 자립도 높인다

### 게르마늄 공장 신설 등 자금 집행 글로벌 공급망 허브역할 확대 구상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사진)이 국내 핵심 소재·광물의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고려아연은 2029년까지 울산 등 국내에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 전략광물의 연구개발과 자원 순환, 환경, 안전 인프라 등 전방위에 걸쳐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재와 핵심광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허브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고려아연은 게르마늄 공장 신설에 약 1400억원을, 갈륨 회수 공정을 구축하는 데 약 557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부터 게르마늄을 연간 12톤, 갈륨을 연간 15톤 생산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00억원 수준의 매출



총이익(게르마늄 가격 1kg당 3500달러, 갈륨 가격 1kg당 920달러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게르마늄은 야간투시경, 적외선 감지기, 열화상 카메라, 태양전지판 등 방산과 우주산업에 활용되는 금속이며 갈륨은 전력반도체 웨이퍼 원료, 집적회로, 광전자용 소자 등에 쓰인다.

또 고온 초전도체, 차량 변속기 부품에 사용되는 전략광물인 비스무트 공장 증설을 위해 2026년까지 300억원가량 집행한다. 이를 통해 비스무트 생산능력을 연간 1500톤으로 기존 대비 500톤 확대한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량은 한국산 비중이 23%로 중국산(6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글로벌 비철금속 1위 기업으로의 차

별화와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

고려아연은 2028년 3월까지 약 1500억원을 투자해 인천 송도에 R&D센터를 신설하고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하는 송도 R&D센터는 소재, 재자원화, 에너지, 인공지능(AI), 로봇틱스 등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추진과 경제안보 수호,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 2027년까지 약 500억원을 투자해 납축전지 파쇄장을 증설한다. 연간 20만톤 규모의 납축전지를 파쇄할 수 있으며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해 재생연을 생산하는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이차전지 소재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울인원(All-In-One) 니켈제련소’를 건설하는 투자도 순항 중이다.

2026년까지 약 52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로 2027년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연간 4만2600톤의 이차전지용 니켈을 생산하게 된다. 2027년까지 1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산소공장도 증설한다.

지난 2024년부터 500억원 이상을 집행해 자가매립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등 환경 분야 투자도 늘려갈 방침이다. 또 안전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1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통합 관제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와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건립 투자와 투트랙으로 국내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국내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HJ중공업 해군 고속정 4척 건조

방사청과 3125억 규모 계약

HJ중공업이 해군의 신형 고속정 4척을 추가 수주하며 함정 전문 방위산업체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HJ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군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Batch-II) 13~16번함 4척 건조 입찰에서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돼 기술협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방위사업청과 총 3125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HJ중공업은 앞서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Batch-I) 16척 전 함정을 수주·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데 이어 검독수리-B Batch-II 사업에서도 현재까지 발주된 16척 전량을 수주하게 됐다.

/원관희 기자 wkh@

## KAI, 한국형전투기 성능 검증… 6859억 규모 계약

차재병 대표 “방산수출 확대 기여”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방위사업청(방사청)과 한국형전투기(KF-21) 추가무장시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6859억원으로 입번 추가무장시험 사업 계약이 체결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계개발사업 종료 전 공대지 능력에 대한 비행시험 검증 준비를 통해 연속적인 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추가무장시험 사업의 수행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까지로 한국형전투기(KF-21)의 성능이 기존 공대공 무장 운용 범위에서 공대지 무장 능력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 및 성능 검증이 수행될 예정이다.

KAI는 공대지 무장능력과 더불어 AESA 레이더 및 주요 항전장비의 공대지 기능에 대한 시험평가도 병행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 종료 시 전투기의 종합적인 작전능력을 확보 할것으로 기대된다.

KF-21 추가무장시험 사업은 단계별 시험평가 방식을 적용해 검증된 능력이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KF-21 추가무장시험 사업은 지난 8월 방추위를 통해 승인한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라 시험평가를 3단계로 구분 수행할 예정으로 각 단계별 시험평가 검증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오는 2028년말부터 적용 예정이던 공대지 능력을 2027년 전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조기 확보가 예정이다.

KF-21은 확장된 무장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항공무기체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해외 잠재 고객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FA-50 운용국인 중동, 동남아 등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KF-21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장된 무장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재병 KAI차재병 대표이사는 “KF-21 추가 무장의 단계별 시험평가의 성공적인 수행은 향후 고객 요구도에 맞춘 맞춤형 시험·검증 능력까지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미리보는 CES 2026

### 삼성전자 AI 에어드레서 신제품

삼성전자가 강력한 주름 제거 기능을 탑재한 2026년형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 의류정전기 신제품(사진)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1월 4일(현지시간) CES 2026에 앞서 ‘더 퍼스트룩’ 행사를 개최하고 성능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 신제품은 구겨진 옷의 주름을 마치 스팀 다리미처럼 말끔하게 펴주는 ‘주름집중케어’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주름집중케어 기능은 강력한 바람과 고온 스팀으로 구겨진 옷을 빠르고 말끔하게 관리해준다. 또 의류에 밴 끈끈한 냄새까지 탈취하기 때문에 외출 전이나 바쁜 아침에도 주름진 옷을 간편하고 빠르게 마치 새 옷처럼 관리해 바로 입고 나갈 수 있다.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는 기존 모델에서 호평 받았던 ▲의류의 안팎에 바람을 쏘 오염물질을 직접 털어내는 ‘듀얼에어워시’ ▲고온 스팀을 분사해 탈취뿐만 아니라 옷감 속 남아있는 바이러스까지 효과적으로 살균하는 ‘듀얼제트스팀’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다. /차현정 기자



### LG전자 ‘LG 사운드 스위트’ 공개

LG전자가 인공지능(AI)과 무선 통신 기술로 어떤 공간에서도 최적화된 사운드를 구현하는 신개념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LG 사운드 스위트(사진)’로 홈 엔터테인먼트 고객경험 혁신에 나선다.

LG전자는 오는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사운드바(모델명: H7)와 무선 서라운드 스피커(모델명: M5·M7), 서브우퍼(모델명: W7)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홈 오디오 시스템 ‘LG 사운드 스위트’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LG 사운드 스위트는 사운드바 최초로 스피커 위치를 인식해 오디오 신호를 최적화하는 최첨단 음향기술 돌비 애트모스 플렉스커넥트를 지원한다. 고품질 음향을 무손실 전송하는 LG전자의 독자적인 무선 전송 기술을 더해 선명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다.

LG 사운드 스위트는 스피커의 위치를 자유롭게 배치해도 공간에 최적화된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차현정 기자





# “디자인·화질 다 잡았다”… LG이노텍, ‘차세대 UDC’ 첫 선

CES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공개  
계기판 뒤 카메라 숨겨 ‘무노출’ 구현  
디스플레이 가림에도 화질 저하 줄여  
전방주시 등 운전자 상태 실시간 감지  
탑승자 인식 기반 맞춤형 편의 확장

LG이노텍이 계기판 뒤에 탑재돼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차세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차세대 UDC)’을 개발한다.

LG이노텍은 오는 1월 4일(현지시간) 열리는 CES 2026에서 차세대 UDC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이하 UDC)는 차량 내부의 카메라, 소프트웨어(S·W)를 통합해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DMS(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다. 계기판으로 활용되는



[LG이노텍 직원이 차세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을 소개하고 있다.

/LG이노텍

차량용 디스플레이 뒤에 장착돼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졸음운전, 전방주시 등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쓰인다.

DMS는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되면, 운전자의 부주의 예방을 위한 필수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은 2026년부터 신차에 DMS 의무 장착을 법제화할 예정이며,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DMS 의무화를 적극 검토 중이다.

그 중에서도 DMS의 핵심인 DMS용

카메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고급 차종을 중심으로 세련되고 유려한 디자인 등 심미적인 이유로, 보이지 않는 UDC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등 돌출된 카메라로 인한 운전자의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또한 UDC가 주목받는 이유다.

반면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카메라 시야를 가리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화질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과제였다. 완성차 업체들이 UDC 도입을 주저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G이노텍은 LG 디스플레이와 손잡고 지난해부터 신제품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1년 여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디스플레이 뒤에 카메라를 깔끔하게 숨기면서도 화질 저하를 없앤 ‘차세대 UDC’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

것이다.

기존 DMS용 카메라는 주로 대시보드 또는 조향장치 위에 설치돼 외부로 돌출돼 있었다. 운전자의 시야에 보일 수밖에 없고,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LG이노텍이 선보인 ‘차세대 UDC’는 계기판 역할을 하는 차량 디스플레이 패널 뒤에 장착, 카메라 탑재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숨겨진다. 회사는 이러한 디자인 차별화가 하이엔드 브랜드의 완성차 업체에 소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향후에는 ‘차세대 UDC’가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자와 색깔 등을 인식해 시트 조절, 내부 온도 설정 등 차량의 맞춤형 편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팁스, 글로벌 R&D 신설로 전주기 지원

중기부, 민간투자연계 확산방안  
스케일업·딥테크 최대 60억 지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면서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제도가 확 바뀐다.

전주기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에서 자율성을 높인다. 투자 운영사도 다양화한다. 내년부터 글로벌 R&D 부문이 새로 생긴다. 50% 이상을 지역 기업에 우선 할당하는 등 지역 우대를 더욱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연계, 팁스 R&D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12년간 혁신 기업 5000여 곳이 팁스를 통해 21조3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했다. 이는 정부 R&D 출연금(2조2000억원)의 10배 수준이다. 48개사가 기업공개(IPO)에 성공했고 96건의 인수합병(M&A) 성과도 창출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팁스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체계 확립 ▲자율성 강화 및 투자 운영사 다양화 ▲범부처 협력 확대 ▲지역 우대를 제대로 한 내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잡했던 창업단계 팁스를 단순화한다. 글로벌 트랙을 얹었고 딥테크 트랙은 기본 R&D에서 성과를 낸 기업을 위한 후속 지원으로 바뀐다. 특히 최대 6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R&D를 신설하고 기업의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을 돕는다.

스케일업 팁스 R&D 물량은 연간 152개에서 300개로 늘고 지원규모도 최대 30억원으로 올린다. 어려운 기술 해결에 도전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는 과제당 지원금을 5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다수 중소벤처기업 협업형 프로젝트인 ‘생태계혁신형’을 시범 추진한다.

중기부는 스케일업 팁스 이후 단계를 발굴하는 투자 운영사도 8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과제 선정·평가와 R&D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 참여를 늘리고 기술 및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무빙타겟 지원체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범부처 협력도 확대되는데 각 부처가 발굴·추천한 기업 및 프로젝트와 민간 투자 간 연계를 돕는다. 이를 위해 ‘팁스 R&D 협의조정위원회’와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팁스 R&D 추진단’을 꾸린다.

지방까지 팁스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우대 정책도 시행한다. 일반 팁스, 스케일업 팁스는 50% 이상 지역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요건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제한을 폐지하고 지역투자 전용펀드를 2030년까지 확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창업벤처 생태계를 이끌어온 팁스 R&D를 범부처 정책 플랫폼으로 확대해 다양한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HD한국조선해양, 조선기술 로드맵 공개

‘MIT 조선해양 컨소시엄’ 성과 공유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글로벌 조선·해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조선해양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기술 협력 행보를 본격화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17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 R&D센터에서 ‘MIT 조선해양 컨소시엄’ 1년 차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MIT 조선해양 컨소시엄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그리스 해운사 캐피탈(Capital), 미국 선급 ABS 등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글로벌 탈탄소화를 목표로 올해 3월 출범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솔루션 △사이버 보안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 선박 개발 고도화 △3D 프린팅 기반 제조 기술 등이 발표됐다. 특히 컨소시엄은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 계열회사인 아비커스의 ‘하이나스 컨트롤’을 탑재할

선박을 선정, 향후 이를 통해 연비 절감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해상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AI 모델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했으며 해상 원자력 기술 상용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0월 MIT에서 발간한 ‘SMR 추진선 안전 책자’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컨소시엄은 이를 통해 차세대 선박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워크숍에서는 향후 3년간 이어질 기술 개발 로드맵과 함께 2030년 이후 조선해양 산업의 핵심 기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연비 절감 효과의 표준화, 디지털 전환 가속, 사이버 위협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참여 기관 간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테미스 샵시스(Themis Sapsis) MIT 해양공학센터장은 “기술, 연료 생산 및 공급 등 친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조선해양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는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여경협, 여성기업 337만개 ‘역대 최대’

2023년 기준 여성 중소기업 현황  
종사자 553만명, 임직원 비중 72.7%  
도소매업 등 생활밀착 업종에 집중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이 337만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99.98%인 329만개가 소상공인으로, 남성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기업이 많았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 여성경제연구소가 18일 내놓은 ‘2023년 기준 여성 중소기업 현황’ 자료에서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중소기업 수는 337만2665개로 전년보다 11만3454개(3.5%)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553만4662명으로 전년 대비 11만5506명(2.1%) 늘었다. 여성기

업의 72.7%는 여성 종사자로 여성 고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기업의 여성 비율은 32.6%에 그쳤다. 여성기업의 여성 종사자가 남성기업보다 2.3배 많은 모습이다.

여성기업의 총 매출액 역시 639조47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2414억원(2.1%) 증가했다.

여성기업의 업종은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이 64.2%로 이들 업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체 여성기업 중에선 소상공인이 97.5%로 소규모 기업들이 남성기업(93.6%)보다 많았다. 지역은 여성, 남성 모두 1위가 경기(여성 26.6%, 남성 26.8%), 2위는 서울, 3위는 부산이었다.

/김승호 기자

## 중기중앙회, 中 공세·관세부담 속 中企 돌파구 모색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현안 점검

중소기업중앙회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기업계의 산업·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기문 회장, 한병준·박평재·정한성·신용문 부회장 그리고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중국 저가제품 공세 ▲

중국 기술의 부상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위기 요인으로 언급하며 뿌리산업 지원 강화, 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마련 등을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은 대기업 단독의 산물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전 분야에서 기민하게 협력하는 대·중소기업의 협력 생태계에서 나온다”며 “김정관 장관이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는 M·A·X(제조업 A·X) 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철

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고율관세 등 과제를 산업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는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혁신, 공급과잉 산업의 사업 재편, 미국 관세부와 조치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승호 기자



# “규제가 혁신 촉진한다”… 美 압박에도 ‘온플법’ 논의 지속

온플법,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등  
美 빅테크 핵심수익 모델 정조준  
美,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로 압박

국내업계, 해외 독주 제동 기대와  
국내 기업 발목잡기 우려 공존

미국이 자국 빅테크 보호를 위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 의회가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비판하고 정상회담 합의문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논리로 맞섰고 국회도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회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의 혁신을 모방하면서 규제로 미국 기업을 내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규제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확산으로 규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정하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국 측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팩트시트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외교·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규제 기조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경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5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에 안주한 빅테크를 새로운 혁신으로 밀어내는 장치”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며, 규제가 없다면 빅테크들이 기존 검색·운영체제(OS) 등 ‘캐시카우’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규

제를 통해 ‘지대 추구’를 차단해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경쟁이 촉진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한국의 제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글로벌 기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 마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정무위 법안2소위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발의안들을 병합한 것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 상임위 상정이다.

미국 빅테크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른바 ‘온플법’이 이들의 핵심 수익 모델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인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구글이나 애플이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하거나 유튜브 뮤직 등을 묶어 판매하는 ‘록인(Lock-in)’ 전략은 제약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단순한 규제를 넘어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 업계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거대 해외 플랫폼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자칫 국내 기업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한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빅테크는 조세 회피나 망 사용료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이 해외 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강력한 잣대로 집행된다면, 그간 국내 기업들이 겪었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해외 기업이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결국 규제의 칼날은 만만한 국내 기업들만 향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토종 플랫폼의 성장 동력마저 꺾어버리는 ‘역차별’의 골레가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KT, ‘조승아 사외이사 자격 상실’ 공시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 겸직  
대표이사 최종후보 선정 관여 안 해

KT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17일 공시했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조승아 이사의 겸직 시점이 맞물리며 발생했다. 조 이사는 지난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당시에는 국민연금공단이 KT의 최대주주였기에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해 3월 국민연금이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4월부터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사후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KT 측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 이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이사의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2024년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 이사가 참여한 KT 이사회의의결 가운데 조 이사의 표결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일각에서는 조 이사가 포함된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후보로 의결한 것에 대해 효력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전날 박 전 사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 및 최종 후보 선정 과정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과거 이사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도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 및 위원회의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조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결의 요건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향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 KT, 크리스마스·연말연시 네트워크 집중관리

인파 밀집 지역 등 관리 지역 지정  
연휴 기간 노린 사이버 공격 대비도

KT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기간 동안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집중관리 체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KT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대형 공연장, 백화점, 변화가 등 성탄절 인파 밀집 지역과 연말 타종식, 새해 해맞이 행사 장소를 별도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내년 1월 2일까지 기지국 증설과 품질 점검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통신센터에 1000여 명의 네트워크 인력을 배치해 유·무선 서비스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현장 상황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네트워크 집중 관리하는 모습. /KT

실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을 노린 스미싱과 피싱 등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한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새해 인사’,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스팸 차단 서비스를 통해 의심 문자를 자동 식별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 LG CNS-클라인, 자율적으로 일하는 ‘AI 개발자’ 만든다

에이전틱 AI 기반 솔루션 공동협약

AX 전문기업 LG CNS가 1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글로벌 AI 코딩 에이전트 개발 기업 클라인과 ‘차세대 에이전틱AI 기반 솔루션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LG CNS의 자체 AI 코딩 기술인 ‘데브온 AI 네이티브 디벨롭먼트’에 클라인의 ‘코딩 에이전트’를 결합, 에이전틱AI 기반 솔루션 ‘클라인 스펙 드리븐 포 엔터프라이즈’를 공동 개발한다. 단순 보조 역할에 머물던 AI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클라인 CEO 사우드 리즈완(왼쪽)과 LG CNS CEO 현진균 사장이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열린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일하는 ‘개발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클라인의 코딩 에이전트는 오픈소스로 제공돼 기업은 각자 내부 시스템과 인프라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기업 특성에 맞게 설계된 코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 뛰어나다. 특정 AI모델이나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는 점도 강점이다.

LG CNS는 다양한 고객사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지식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화한 ‘지식 파운데이션’을 구축하고 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CJ올리브네트웍스, 마테크 솔루션 제공

이커머스 초개인화 마케팅 고도화

CJ올리브네트웍스가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과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이커머스 기업의 초개인화 마케팅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서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도입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마테크(MarTech)’가 핵심으로 꼽힌다. 마테크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취향과 행동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마케팅을 구

현하는 방식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CRM 자동화 솔루션 ‘브레이즈’와 데이터 분석 솔루션 ‘앰플리튜드’의 공식 리셀링 파트너로, 마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브레이즈를 통해 이메일, 앱 푸시, SMS 등 다양한 메시징 채널을 통합 관리하고, 구매 이력과 방문 빈도 등을 분석해 고객별 맞춤 메시지를 적절한 시점에 자동 발송할 수 있다. 앰플리튜드는 고객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구매 경로와 선호 카테고리 등을 시각화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김서현 기자





# 시대를 읽다. 미래를 열다 한국외대만의 혁신

HUFS의 글로벌 경쟁력에 첨단융합학문을 더해  
학생의 꿈과 성공을 위해 나아갑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Come to HUFS Meet the World!

가장 많은 국가와 교류하는 대학  
102개국 613개 대학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양성 8개 학부 신설  
Language & AI융합학부 / 반도체학부 /  
Finance & AI융합학부 / AI데이터학부 /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 기타 융합학부

반도체 분야 5년간 7개 대학 중 1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정

2024 국가고객만족도(NCSI)  
사립대학교 부문 2년 연속 2위

2024 혁신대학 세계총회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상 수상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고 등급, 114억원 지원

## HUFS INNOVATION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신한투자증권, 올해 국내 주식거래 데이터 분석

# 개인투자자 10명 중 7명 수익… 최다 구간 ‘100만원 이하’

장세 롤러코스터… 성과 양극화  
삼성전자, 5~9만원대 희비 엇갈려  
평균수익 912만원·손실 685만원

#3년 전 핀테크업에 입사한 김모 씨(32)는 취업문만 통과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다. 하지만 달라진 건 대학 앞 자취방을 벗어나 오피스텔로 이사한 것뿐. 그마저도 전세대출 9000만 원을 받았다. 입사 무렵 점찍어둔 아파트는 6억 원에서 13억5000만 원으로 치솟은 반면 김 씨의 연봉은 700만 원 올랐다. 올해 초엔 마이너스통장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수익률은 -5%다. 김 씨는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린다면 취업에 목숨 거는 대신 골드바를 샀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아수의 심장’을 가진 공격형 투자자라고 소개한 한모 씨(28). 그는 국내 증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동학개미’다. 한 씨는 올해 2월경 마이너스통장 1억 원, 신용대출 3300만 원에 그간 모아놓은 돈 1억 3000만 원을 보태 12.3 계엄사태로 불안한 틈을 타 시장에 뛰어들었다. 3월 코스피 2600선이 무너지자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샀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현재 수익률이 10%를 웃돈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주식투자 양극화 이미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개미(개인투자자)에게 올해 증시는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코스피·사천피(코스피 지수 4000) 시대에 자산 양극화는 컸다. 올해 10명 중 3명은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 수익을 낸 나머지 사람의 절반이 손에 쥔 돈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18일 신한투자증권이 올해(1~11월) 국내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33.0%는 주식거래로 손실을 봤다. 평균 손실액은 685만원이었다.

반면 67.0%는 수익을 기록했지만, 절반(54.4%) 이상은 수익이 ‘100만원 이하’였다. 평균 수익액은 912만원으로 집계됐다.

손실액 구간은 ‘100만원 이하’ 57.1%,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30.1%, ‘1000만원 초과’ 12.9% 순으로 집계됐다.

수익 투자자 중에서는 수익액 ‘100만원 이하’ 비중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32.3%, ‘1000만원 초과’가 13.3%였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의 희비가 가장 엇갈린 종목이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투자자 가운데 81.4%는 평균 25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 18.6%는 평균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수익을 실현한 고객의 매도 단가는 ‘7만~8만원대’가 35.0%로 최다였고, ‘5만~6만원대’ 34.2%, ‘9만원 이상’ 30.9%가 뒤를 이었다. 주가가 11만원 이상으로 상승했던 시점에 매도한 비율은 0.5%에 그쳤다. 손실을 본 고객의 매수 단가는 ‘5만~6만원대’가 53.3%로 과반을 차지했고, ‘7만~8만원대’ 32.3%, ‘9만원 이상’ 14.4%였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종목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71%가 수익을 실현한 반면, 코스닥 종목 매도 고객은 수익 53%, 손실 47%로 수익과 손실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격전에서 성공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동학개미 세대가 ‘투자분투(奮鬪)’ 세대가 된 것은 축적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일지러는 불안해지고 소득은 주는데 자산 가격은 다락같이(물건 값이 매우 비싸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금감원

##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2개사 우수, 19개사 보통, 8개사 미흡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대다수 금융회사가 ‘보통’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전체 77개 금융회사 중 2그룹에 해당하는 2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은행 6곳, 생명보험 5곳, 손해보험 2곳, 증권 5곳, 여신전문금융회사 8곳, 저축은행 3곳이다. 평가는 지난 5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9영업일 동안 이뤄졌다.

평가 결과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27개사 가운데 19개사는 ‘보통’, 8개사는 ‘미흡’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는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가운데서는 신한투자증권만 ‘보통’ 평가를 받았다.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환매 중단 사모펀드 불안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기관 제재를 받은 점이 반영돼 ‘미흡’ 등급으로 하향됐다.

/허정윤 기자

## 금감원,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등급 상향

쿠팡 유출사고 악용… 주의→경고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 권고

금융당국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실제로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최근 발생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월 1일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언급하며 금융소비



금융감독원 전경.

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 개설이나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주거나, ‘피해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방

식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법원 등기 반송’, ‘사건 조회’, ‘피해 여부 확인’ 등을 명목으로 특정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한다. 해당 사이트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와 거의 동일하게 꾸며진 피싱사이트로,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이나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 사기범에게 장악돼 전화번호 조작, 개인정보 탈취, 실시간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스미싱 피해도 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전자결제대행사 직원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쿠팡에서 유출된 것으

로 보이는 이름·연락처·계좌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신뢰를 높인다. 이어 수백만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제시하고 문자 내 링크(URL) 클릭이나 텔레그램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사건 확인이나 등기반송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을 적극 권고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서비스가 차단돼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하나증권, 발행어음 사업 전담 조직 신설

내년 1월 발행어음 상품 출시 목표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자금 운용·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 발행어음 인가를 계기로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해 모험자본 투자와 기업금융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증권은 지난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최종 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가 이후 대표이사 직속으로 발행어음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획, 조달, 운용, 사후관리 전반을 총괄하



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험자본 투자 심사프로세스를 새롭게 구축해 보다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자

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발행어음 상품 출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전국 WM(자산관리) 채널을 통해 판매되며, 조달된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인수금융, 기업대출, 기업금융 등 IB 핵심

영역에 투자해 WM과 IB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운용 자산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투자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을 지원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이를 위해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심사 및 사후 관리 역량을 고도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을 추진한다.

모험자본 투자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국민성장펀드, 민간공동기금펀드 등과의 간접투자도 병행해 투자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학계와 비영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 기업 발굴에도 나선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하나증권은 이번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통해 그룹 차원의 프로젝트에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투자 부문을 담당하며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사진)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성장과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인가를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모험자본 공급 부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 한국거래소, 31일 휴장

2026년 1월 2일 10시 개장

올해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 국내 주식시장이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 휴장일인 31일은 결제일에서 제외된다. 결산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인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29일이다.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 결산배당 기준일을 12월 말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을 수령받을 수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30일 오후 6시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정상 실시하고, 31일 오후 6시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휴장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중 양청산(CCP)과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업무는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2026년, 새해 첫 개장일은 1월 2일이다. 이날은 증시 개장식이 개최됨에 따라 매매거래 시간이 임시로 조정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정규시장은 오전 10시에 개장하며, 거래 종료 시각은 현행과 동일하게 오후 3시 30분이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시장 역시 거래 시간이 1시간 순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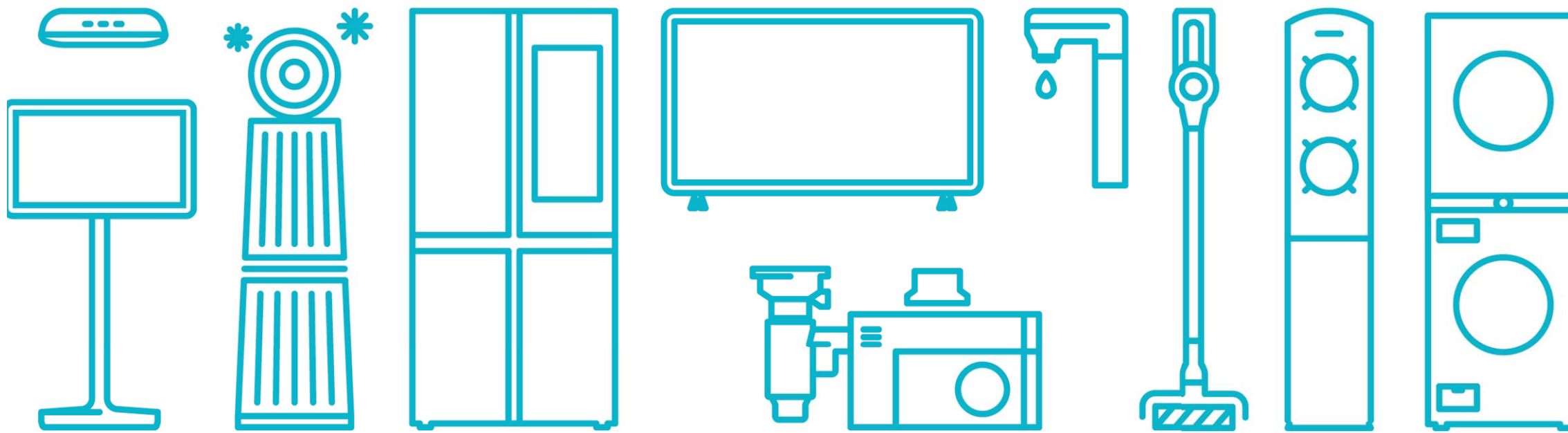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도 한국거래소의 연말·연초 일정 조정에 따른다.

/신하은기자 god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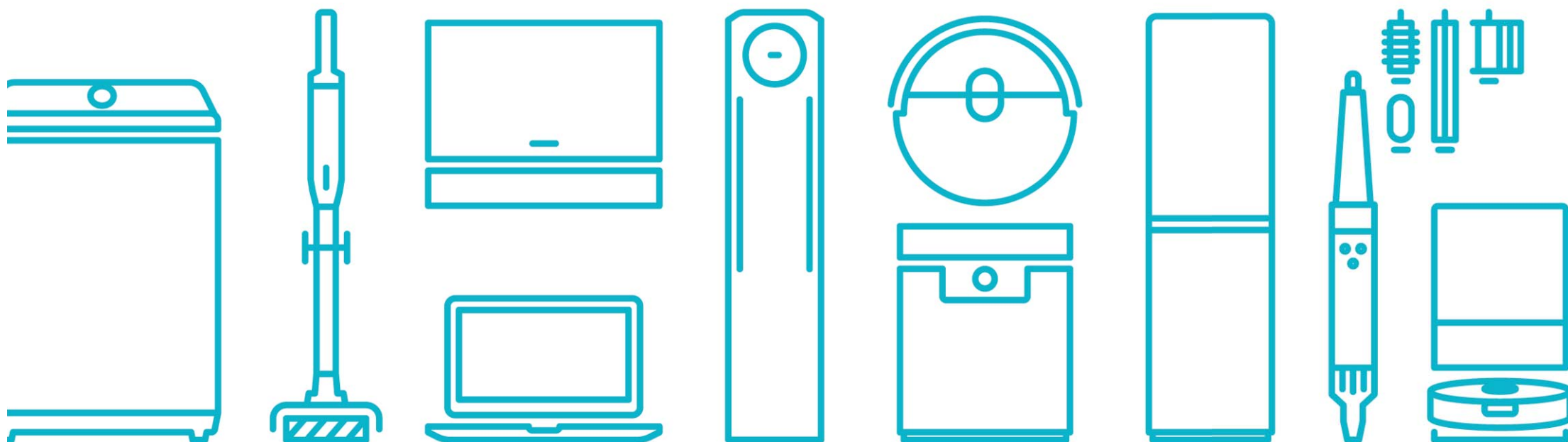


 LG HelloVision

Hello rental



#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5년간 100만명 AI 직업교육 확대 구직·재직·전직 전 단계 아우른다

노동부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  
청년·중장년 전 국민 대상 교육  
K-디지털 트레이닝 AI 중심 개편  
훈련 참여수당 인상 등 유인 확대  
AI 전환 대응 일자리 로드맵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민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재양성에 나선다. 구직자부터 재직자, 이·전직 준비자까지 노동시장 전 단계에 걸쳐 AI 활용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AI 활용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노동시장에 있는 국민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훈련 기반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노동시장 진입기 단계에서는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초 이해부터 직무 활용, 솔루션 개발까지 이어지는 ‘AI 역량 향상 모델’을 제시한다. 내일배움카드 일반훈련에 AI 기초 이해·활용 과정을 확대해 5만6000명을 지원하고, K-디지털 크레딧을 통해 AI 원격훈련 과정도 3만3000명 규모로 늘린다.

대표적인 청년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트레이닝(KDT)은 분야별 AI 엔지니어 양성 과정으로 고도화된다. ‘KDT AI 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AI 시스템 개발, AI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현업 중심의 AI 엔지니어 1만명을 양성하고,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수당도 인상한다. 내년에는 최대 월 31만6000원, 2026년부터는 수도권 4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인구감소지역 80만원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AI 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된다.

노동시장 활동기의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의 AI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AI 훈련 참여 비중은 전체 훈련 대비 낮지만, 향후 3년 내 AI 훈련 의향이 있다는 중소기업이 67.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AI 훈련 희망 중소기업 발굴→훈련수요 진단→맞춤훈련’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 등과 협업해 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AI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 발굴된 기업에는 훈련 진단과 AI 훈련 로드맵 설계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2000개 기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로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 10곳을 지정해 도메인과 AI 지식을 함께 아는 민간 직업훈련 주치의도 양성한다.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무 전환을 위한 AI 교육훈련이 강화된다.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전국 39개 폴리텍 캠퍼스에서 중장년 특화과정을 포함한 전체 과정에 AI 기초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2만8000명이 대상이며, AX 훈련과정(1000명), 직무 전환훈련(500명)도 별도로 운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할 기회를 찾는 분들,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AI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동’이 함께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전환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담은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무보, 美 버라이즌에 17억달러 금융지원

삼성 통신기기 구매 조건부  
북미 스마트폰 시장 확대 노력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 최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북미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나선다.

무보는 18일 미국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Verizon Communications Inc)의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17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버라이즌은 약 1억5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로, 이번에 조달한 자금 전액은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 등 국산 통신기기 구매에 사용된다. 무보는 이번 금융지원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현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보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국산 제품 구매를 조

건으로 한 ‘디바이스 파이낸싱(Device Financing)’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 초 캐나다 최대 통신사업자 벨(Bell)에 7억달러 규모의 국산 통신기기 구매자금을 지원했고, 유럽 시장에서도 2021년 폴란드, 2023년 프랑스 주요 통신사에 각각 1억유로와 3억5000만유로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되는 통신기기 부품 일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조달될 예정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 매출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최근 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본재 수출 위주의 금융지원 전략에서 벗어나 통신기기 등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글로벌 우량 바이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 10년 표류 끝 현대화 착공

해수부, 수산물 유통체계 개편 시동  
위생·물류 개선해 전국유통 허브로

정부가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포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부산공동어시장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어시장은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비 지원을 받는 만큼,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가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지 위판장으로 국내 수산물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1973년 개장한 이후 별도의 재정비 사업 없이 운영돼 노후화된 시설의 대체가 시급하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수산물의 양륙·처리를 여전히 나무상자와 바닥 경매에 의존하고 있어 위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수부가 지난 2010년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의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설계 내용, 사업비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설계가 중단되는 등 사업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조감도. /해수부

이후 올해 8월 해수부가 부산시,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 정상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9월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설계안이 마련되면서, 2015년 현대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에 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화사업 사업 소요 기간은 총 47개월로 2029년 말 준공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공동어시장은 콜드체인 시설과 물류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위생·선진적 밀폐형 위판장으로 재탄생한다.

부산공동어시장이 국내 위판 물량의 큰 비중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공사 중에도 위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전략수출기금, 부총리 중심 한목소리 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기자단 간담회  
원전·방산·조선 수출금융 새 구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수출기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구성이 돼 있지 않다”면서도 “부총리 조직이라 부총리의 리더십 하에서 경제 안보, 공급망, 수출 이런 부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출 지원 관련 부처간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략수출기금은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조선 등 대형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수출금융 지원책이다. 기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중심의 금융 지원을 넘어 전략적 수출에 특화된 재원과 금융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대규모 공적 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의 수출 성과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관련 산업 생태계와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다만 전략수출기금 구상과 맞물려 무역보험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무역보험공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무보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더 많이 만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무보가 하나은행 등과 함께 5000억원 규모 자동차 부품 수출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보의 역할은 아니지만, 기업들에게 단순한 보험, 보증을 떠나서 다른 금융기관, 역량있는 주요 기업과 함께하면 큰 비용 안들이면서 도움을 주는 금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은행이라 BIS비용을 맞춰야 하는데, 무보는 그렇게 없어 영역이 넓다”며 “무보가 지역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와 관련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느냐가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군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퇴근을 안 해서, 국장이 퇴근을 안 해서 퇴근을 못한다는 얘길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우협회 “올해 렘피스킨병 발생 없다”

백신 일제접종·매개체 방제로 차단

전국한우협회는 소 렘피스킨병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축 질병은 2023년 10월 서산 한우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2024년 12월까지 전국 농가 곳곳에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그간 협회는 한우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백신접종을 위한 농가 홍보활동을 벌여 왔다. 이와 함께 렘피스킨 전파의 매개체인 침파리·모기 등 방제를 위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적극 협업해 조기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위험도 평가 결과, 2026년도부터는 렘피스킨 백신 자율접종 시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렘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매개체 방제 등과 관련해 농가 방역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는 것. 협회는 올해 ‘민·관·학 합동 소 방역대책위원회’를 주관해 ▲렘피스킨 위험도 기반 백신접종 방법 개선 ▲살처분 보상 체계 개편 ▲브루셀라 예방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성과도 이끌어 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흑백요리사2’로 식품·유통 컬래버 열기 다시 불 지핀다

CJ그룹, 프로그램 전반서 존재감  
오비맥주, 캠페인·협업·광고 전개  
편의점, 화제 레시피 선점경쟁 치열  
스타벅스, 유용육 협업 샌드위치 선보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지난 16일 공개된 가운데, 식품·유통업체가 분주하다. 지난해 시즌1 방영 당시 출연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화제성과 매출을 동시에 끌어올린 전례가 있는 만큼 업계는 이른바 ‘흑백요리사 효과’가 침체된 내수 시장에 다시 한 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흑백요리사 시즌2 1~3화는 16일 오후 5시 공개됐다. 흑백요리사는 오직 맛으로 계급에 도전하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와 이를 지키려는 스타 셰프 ‘백수저’가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시즌1은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글로벌 톱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했으며, 시즌2 역시 공개 직후 대한민국 TOP10 시리즈 1위를 유지하며 흥행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시즌2 공개와 동시에 기업들의 협업 경쟁도 본격화됐다. 대표 협찬사로 참여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에 등장한 CJ제일제당 비비고 팬트리/CJ제일제당

한 CJ그룹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각 화차 도입부에는 CJ제일제당 광고가 송출되고, 본편에는 ‘비비고’ 로고가 크게 새겨진 셰프 전용 팬트리가 등장한다. 팬트리에는 요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가 총망라돼 있다. CJ제일제당은 고추장, 된장, 찜장, 소스, 설탕, 소금, 올리브유, 1분콩 등 기본 재료부터 햇반, 만두, 김치, 김, 두부, 햄 등 대표 제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제공해 경연에 참가한 셰프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CJ더마켓에서는 ‘흑백요리사’를 검색

하면 방송에 등장한 식자재를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해 콘텐츠 화제성을 실제 소비로 연결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참여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콜라보 제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주류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비맥주는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를 앞세워 시즌2 협업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모회사 A B인베브와 넷플릭스의 글로벌 파트너십 이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캠페인으로 시즌1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가 등장하는 광고 영상과 숏폼 콘텐츠, 온·오프



테이스티 저니 유용육 바베큐 투컷 비프 샌드위치

/스타벅스

라인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유통 채널에서는 특히 편의점들이 시즌2 공개에 맞춰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25, CU,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들은 최근 관련 상품 개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기 셰프와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상품 개발에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화제성 있는 레시피를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해 시즌1에서 편의점은 최대 수혜자로 꼽혔다. CU가 권성준 셰프와 협업해 출시한 ‘밤 티라미수’는 예약 판매

시작 20분 만에 2만 개가 완판됐고, 누적 판매량은 450만 개에 달했다. GS25 역시 출연 셰프 협업 상품 누적 판매량이 450만 개를 넘어섰다. 이마트24는 시즌2 출연자인 손종원 조선히otel 셰프와 협업 상품을 이미 선보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외식·플랫폼 업계도 가세했다. 스타벅스는 시즌2 출연자인 유용육 유용육바베큐 큐연구소 대표와 협업한 샌드위치를 출시했으며, 식당 예약 플랫폼 캐치데이بل은 시즌2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출연 셰프들의 매장을 모은 전용 예약관을 운영 중이다.

모든 기업이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업체들은 시즌2 흥행 추이를 지켜본 뒤 마케팅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말 공개로 인해 협업 상품 출시 시점이 성수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점, 일부 출연진을 둘러싼 논란 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내수 침체 국면에서 흑백요리사만큼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 IP는 드물다”며 “이번 시즌이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신당동 맛집과 ‘한맥마실’ 프로모션 전개

오비맥주 ‘한맥’, 오는 27일부터  
지역 상권과 협업한 홍보 활동

오비맥주의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HANMAC)’이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신당동 맛집들과 소비자 이벤트 등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확산하는 지역 상권 프로모션 ‘한맥마실’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맥마실’은 최근 주목받는 상권의 주요 맛집들과 협업해 한맥의 차별화된 부드러움을 알리고, 소비자 이벤트를 통한 홍보 활동으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모션은 젊은 층에게 ‘힙당동’으로 불리며 트렌디한 지역으로 주목받는 신당동 일대에서 첫선을 보인다. 소비자들은 풍성한 거품과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인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을 각 업장의 시그니처 메뉴와 함께 즐기고 이벤트에도 참



한맥마실 프로모션 포스터. /오비맥주

여할 수 있다.

이번 신당동 ‘한맥마실’은 한맥 생맥주와 어울리는 메뉴를 선보이며 개성 있는 메뉴와 감각적인 분위기로 사랑받는 모던

한식·이자카야 업장 6곳과 함께한다. 참여 매장은 고사리 익스프레스, 계류관, 이방인, 버드삼, 고원 신당, 불물이다.

프로모션 기간에는 ‘한맥마실’ 스탬프 모으기 이벤트도 열린다. 소비자들은 6곳의 업장별로 서로 다른 문양과 색상의 스탬프를 모을 수 있다. 각 업장에 방문해 스탬프 6개를 모으면 ‘한맥마실’ 일러스트가 완성된다. 완성된 스탬프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SNS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맥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맥 브랜드 담당 최성윤 이사는 “‘한맥마실’은 동네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이번 신당동 ‘한맥마실’을 시작으로 내년 다양한 상권과의 협업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SK바사, ‘글로벌 백신 생산허브’ 도약 박차

조봉준 부사장, 원액생산실장 선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의약품 전문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봉준 부사장을 원액생산실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제조 전반을 경험한 전문가로 알려졌다.

특히 LG화학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며 미생물 및 동물세포 기반 바이오의약품 상업화 총괄,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 공정기술 이전 등을 담당한 바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바이넥스, 항암바이러스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 진메디신 등에서는 첨단 바이오기술 분야 현장을 거쳤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주요 규제기관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대응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영입을 통해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 원액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차세대 백신, 신규 모달리티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성장기반을 다진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3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1508억원, 영업손실 19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 증가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 영업손실 396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양한 백신 개발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글로벌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이청하 기자 mlee236@

## “다양한 미식경험으로 나만의 취향 발견”

### 컬리푸드페스타 2025

109개 파트너사, 160여개 브랜드 참여  
행사 콘셉트 ‘홀리데이 테이블’  
롤лет,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마련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컬리의 오프라인 미식 축제 ‘컬리푸드페스타 2025’가 18일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막을 올렸다.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홀리데이 테이블(Holiday Table)’ 콘셉트로 109개 파트너사와 160여개 식음료(F&B) 브랜드가 참여했다. 삼양식품, 롯데호텔, 윤서울, 온하루 등 50여개 파트너사는 올해 신규로 참가한다.

컬리가 이번 행사의 콘셉트를 ‘홀리데이 테이블’로 잡은 이유는 연말 분위기를 맞아 가족, 친구들과 특별한 음식을 즐기고 싶은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컬리 관계자는 “1, 2분기는 비수기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4분기, 12월은 휴파티 수요 등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미식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행사장은 거대한 크리스마스 만찬 테이블을 중심으로 간편식과 그로서리, 신선과 축수산, 베이커리·디저트, 음료·간식, 헬스 등 총 7개 구역으로 나뉘어 큐레이션을 선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브랜드들은 롤лет, 타이머 맞추기, 공 추첨을 비롯한 각기각색 추첨 이벤트로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바름팜은 인형 뽑기 기계에서 실제 선보이는 아채를 뽑아 가져가는 이색 행사를 펼쳤다. 오마랭은 옷을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상품을 줬고, 연세유업은 모델이 농구 선수 서장훈이라는 점에 착안해 농



컬리가 오프라인에서 여는 미식축제 컬리푸드페스타 2025. /컬리



셰프 테이블 행사에서 직접 화이트 라구 파스타를 조리하는 김호윤 셰프(오른쪽). /손종욱 기자

구공을 골대에 넣는 행사를 진행했다.

몇몇 업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단독 공개하기도 했다. 풀무원은 내년 1월에 선보일 예정인 고농도 두부 4종을 공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유명 셰프 12인이 참여하는 ‘셰프 테이블’에는 매일 3명의 셰프가 음식을 조리하며 상품 개발 비하인드를 소개한다. 이 중 10명(김호윤, 김도윤, 송하슬람, 장호준, 안유성, 조서형, 정지선, 황진선, 김시연, 정호영)은 흑백요리사 시즌 1,2에 출연한 셰프인 만큼 최근 방영을 시작한 ‘흑백요리사 시즌2’ 효과도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컬리는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축제의 열기를 이어간다. 오는 29일까지 컬리몰에서 ‘컬리푸드페스타 기획전’을 열고, 행사장에 참여한 브랜드의 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삼성, 4K로 담은 ‘이건희 컬렉션’ 세계에 알린다

아트 스토어 통해 명작 20점 무료 공개  
인왕제색도 등 한국 대표 작품 포함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견희 컬렉션 공개를 통해 전 세계 삼성 소비자들에게 한국 전통 미술의 우수성을 알린다.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삼성아트 스토어’를 통해 미국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이건희 컬렉션’ 20점을 무료로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인왕제색도 ▲십장생도 ▲추성부도 등 한국 대표 작품들은 삼성아트 스토어 국립중앙박물관 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삼성아트 스토어는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4K 고화질 이미지로 구현해 마치 미술관에 직접 온 것처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전 세계 117개국에 제공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아트 스토어를 통해 이견희 컬렉션의 인왕제색도를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삼성TV로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작품 20점을 선정해 고화질 4K 이미지로 구현했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은 고 이견희 선대회장의 기증품 중 한국 예술의 정수를 담은 작품을 엄선해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이 소장하고 있는 이견희 컬렉션 중 국보 7건, 보물 15건 등 총 172건, 297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40여년만에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한국미술 특별전으로 워싱턴D.C.를 비롯한 미국 각지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향후 ▲시카고미술관(2026년 3월~2026년 7월) ▲영국박물관(2026년 9월~ 2027년 1월)에서도 이견희 컬렉션 국외 순회전을 개최할 예

정이다. 이번에 ‘삼성아트 스토어’에 공개된 ‘이견희 컬렉션’ 20점은 국외 순회전 종료되는 시점인 2027년 1월까지 감상할 수 있다.

고 이견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은 “비록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이는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유산 보존에 헌신했다.

고 이 선대회장의 문화공헌 철학을 계승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들은 2021년 4월 이 선대회장이 평생 모은 개인 소장품 2만3000여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했다.

이후 ‘이견희 컬렉션’은 전국 미술관에 순회 전시되며 미술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국내 미술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롯데웰푸드, 소아암 환아 ‘사랑나눔 기부’

롯데웰푸드는 전날 서울 영등포 롯데웰푸드 본사에서 소아암 환아를 위해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조성한 기부금 2000여만 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서정호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내정자,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롯데웰푸드



## 금호석유화학, ‘끝낸 성금’ 1.5억 전달

금호석유화학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에서 ‘끝낸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본사에서 전달된 성금은 약 3000만 원 규모로, 임직원 모금액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됐다. 전국에서 모인 전체 기부금은 총 1억5000만원에 달했다. /금호석유화학

## 동국제강,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임직원 워라밸 경영 성과 인정

동국제강은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근로자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에게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해 왔다.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획득할 수 있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심사에서 동국제강은 ▲가족친화제

도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운영 ▲안정적 노사관계 등 심사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직원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 대상 최대 5일의 휴가와 기념 선물을 증정하는 ‘입학돌봄휴가’나 보직 3년차 팀장 재충전을 위한 5일의 휴가와 휴가비를 제공하는 ‘프리레시(Refresh)’ 제도가 대표적이다. /원관희 기자 wkh@

## 동화기업, 친환경 건축자재로 건강주택대상

포름알데히드 저감 등 기술력 인정

동화기업이 ‘2025대한민국 건강주택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

18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건강주택대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선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후원한다.

동화기업은 친환경 건축자재 전반에 걸친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상인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 목질 바닥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는 전 제품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0.5mg/l 이하인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특히 대표 강마루 ‘진’ 라인업은 자체 개발한 친환경 최고 등급(SE0)의 신소재 NAF(Non-Added Formaldehyde) 보드를 소재로 사용해 주거공간 내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시공용 접착제 역시 발암물질인 라돈가스를 저감하고 곰팡이 차단 및 아토피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동화기업은 폐목재, 폐가구재 등을 원재료로 파티클보드를 생산하며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한다. 최근에는 산불 피해목을 재활용해 생산한 파티클보드를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공식 가구 협찬사에 납품하며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실천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농협, 복지센터 배식·우리쌀 나눔

농협 ‘IT사랑봉사단’이 지난 17일 경기 의왕 관내 복지센터에서 ‘배식 봉사 및 우리쌀 간편식 체험’ 나눔활동을 실시했다. 1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 봉사단은 매월 해당 복지센터를 방문해 정기적인 급식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농협

## 삼성, SSAFY로 AI 인재 육성 강화

13기 수료식… 누적 취업률 85%

삼성이삼성청년SW·AI아카데미(이하 SSAFY)’를 통해 AI 인재 육성 시스템을 강화한다. 삼성은 서울 강남구 SS AFY 서울캠퍼스에서 1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SSAFY는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12기까지 누적 1만125명이 수료했다. 이 중 8566명이 취업해 약8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은 국가 차원의 AI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SSAFY 커리큘럼을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전 산업 영역에 걸친 AX(AI 트랜스포메이션, AI 전환) 흐름에 맞춰, 교육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과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차현정 기자

## 중앙대 17대 총장에 박세현 교수 선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이사장 이현순)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총장으로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박세현 교수(61·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부터다.

박세현 총장 내정자는 중앙대 교무처장을 비롯해 4단계 BK21사업 지능형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장, 스마트에너지 시티 사업단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스마트에너지 전문가 위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대 탄소중립경제원장,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대학원 사업단장, AI 기반 에너지공유데이터센터장, ITRC 탄

소중립 ESG ICT 연구센터장 등 다수의 연구 관련 보직과 사업단장을 맡아 중앙대의 산학 협력기반 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국내의 학술지에 14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등재 기준 80여 편의 전문 학술 서적을 저술하는 등 풍부한 연구 실적과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또한 2013년에는 IEEE 체스터 살 어워드(Chester Sall Award)의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며 국제 학계에서도 학문적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이현진 기자 lhj@



## 하나금융, ‘소셜벤처 4기’ 성과 공유

하나금융그룹이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전국 5개 권역의 30개 거점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특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금융그룹 대표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그룹



## 대한전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대한전선이 연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한전선은 기술연구소 내 정밀분석실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인증제는 산·학·연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대한전선

오늘의 날씨

12월 19일 (금)  
음력 : 10월 30일

수도권 날씨  
0 ~ 10℃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42 | 해질 / 17:16

백령도 6/11

파주 -3/9

인천 1/11

수원 -1/11

평택 -2/12

연천 -3/7

동두천 -2/8

가평 -5/5

서울 0/10

양평 -2/6

용인 -1/1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 고환율 추세, 일시적 현상인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올 3월 1456.95원으로 최고점이던 평균환율(매매기준율)은 정국안정과 함께 하락해 6월엔 1366.95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11월 말 기준 평균환율은 1457.77원으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평균환율이 1457원을 넘어서면 경우가 이번을 포함해서 세 번이 있었다. 하나는 IMF 외환위기 시기로 1997년 11월부터 1998년 3월 기간에 나타났고, 1998년 1월에는 달러당 1706.8원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다른 하나는 2008년 9월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3월 평균환율이 1461.98원을 나타냈다. 그러면, 현재 고공행진 중인 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향후 고착될 것일까? 이에 대한 진단은 실효성이 있는 환율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새 정부 이후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주장들을 살펴보자. 먼저, 국내 투

자자의 해외주식 매수증가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1월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2025년 3분기 해외증권투자액은 전분기 대비 890억 달러가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액 역시 885억 달러나 증가했다. 또한, 전분기 대비 국내의 해외직접투자가 70억 달러 늘어난 반면, 해외의 국내투자는 37억 달러가 오히려 감소했다. 여기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를 서로 상계한 순대의 증권투자는 5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의 국내직접투자를 상계한 순대의 직접투자는 107억 달러이다. 이는 국내 해외증권투자가 고환율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좀 낮고, 국내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해외의 국내 직접투자의 축소에 기인하는 정도가 더 큼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한미관세협정 이행에 따른 외환시장의 선 반영결과에 대한 지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14일에 한국이 3500달러의 대미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등의 관세인하에 합의했다. 우리의 외환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현금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MASGA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불가피했지만, 우리는 유럽식의 관세인하방식보다는 일본식의 대미투자방식을 따랐다. 현재의 고환율은 아마 향후 우리 경제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낮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그리고 국가채무 비중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에 기인해 생산성이 낮고,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전개될 ‘피크코리아’ 우려다.

원화 약세 추세에는 일시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이 섞여 있지만, 고환율이 지속될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의 대처로는 결국 한국경제의 체력향상과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일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혁신 등으로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화되는 고환율에 의해 나타날 서민경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물가 및 금리안정과 같은 이식위천(以食爲天)의 정책병행도 빼놓을 수 없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 감량의 혁신, 삶의 변화



기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비만 치료제 열기가 뜨겁다. 국내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앞다퉈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서구형 고도 비만부터 한국형 비만까지 맞춤형 치료제 개발 소식이 연일 이어진다. 주사제에서 경구제, 패치 등으로 신제형을 독자 개발하기도 하며 다양한 연구개발에 폭넓게 응용 가능한 ‘플랫폼’ 확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들어 비만기본법 제정,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까지 화두에 오르며 혁신 신약이 가져올 ‘체중 감량’과 ‘삶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까지 점점 커진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비만이라는 현대 사회의 질병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국민이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 전망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야 한다.

즉 혁신적인 감량 효과가 진정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만 치료의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 의학적 관점에서 비만은 당뇨병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돌아오는 경우 역시 질환의 만성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에서는 비만을 질환으로 분류하면서도 정작 관련 정책은 비만을 질환으로 취급하지 않는 상황이 치료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비만치료제 급여화 논의 등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동시에 해당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오남용 가능성도 열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의 비판 표준 진료 지침에서 행동인지 치료를 가장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투약이나 약물을 건강 관리의 지름길로만 인식하는 풍조는 또 다른 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제 개발을 통한 혁신 가속화, 제도 활성화 등과 함께 올바른 사용과 인식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미 일부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살 빼는 전쟁’의 강력한 무기처럼 소비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아무리 약효가 뛰어난 신약이 나오고 쉽게 활용 가능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좋은 수단일 뿐이며, 비만 관리 핵심은 개인 생활 습관과 주도적인 노력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사용과 인식을 지지하는 사회적 인내심이 중요하다.

/mlee23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12월 19일 (음 10월 30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48년생 상식 밖의 일이었으나 실적에는 도움. 60년생 내 것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72년생 병 없이 살게 되니 조상님께 감사. 84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나 불청객이다.

 소

37년생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49년생 일시적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61년생 세상은 끝이 없는 넓은 바다. 73년생 기술이 다양하여 대우받던 날들이니 더 연마하자. 85년생 망설임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호랑이

38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50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나아갈 길도 보인다. 62년생 돈에 큰 기대는 하지 말 것. 74년생 잊고 살다 보니 낙원이 따로 없다. 86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토끼

39년생 사돈의 일에 참견하면 일이 더 확대되니. 51년생 이사하지 않겠다고 믿고 나가라. 63년생 세상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다. 75년생 남과 같이 행동하면 손실이 없다. 87년생 자식이 시험이 목전이라면 관음 기도를 해볼 것.

 용

40년생 결실이 보일 때 강하게 밀고 나가자. 52년생 문서나 계약을 꼼꼼하게 살펴라. 64년생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게 마련이니 생각하라. 76년생 신경질적이다 보니 의지할 곳이 없네. 88년생 나를 이해해 주는 배우자가 있어 감사.

 뱀

41년생 원칙을 벗어난 행동으로 곤경에 처한다. 53년생 남의 함정에 끼여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65년생 자신을 알면 흉볼 것도 없다. 77년생 이성간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 89년생 남이 칭찬을 해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

 말

42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54년생 가고 싶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66년생 운전 시에 양보하도록. 78년생 친구의 깊은 우정에 감사. 90년생 가족 간에도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현명.

 양

43년생 작은 일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 55년생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67년생 뜻이 있다면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공부하라. 79년생 배우자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인내해야. 91년생 지나친 아집은 아난지를 생각.

 원숭이

44년생 혼자서 하는 작업으로 즐거움이 많다. 56년생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68년생 언행을 조심하고 오늘부터 삼각관계 경계마당을 주의. 80년생 전화 및 피싱에 주의. 92년생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문제.

 닭

45년생 금전 문제로 마음의 근심이 쌓인다. 57년생 이성애 너무 조바심하지 말자. 69년생 공연한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내려버려 두어라. 81년생 보험을 검사하여 손실보험을 들도록. 93년생 집수선할 때 남의 조언을 가버리여 거지 말자.

 돼지

46년생 노력하니 성과도 다르다. 58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도 거칠 것이 없다. 70년생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82년생 인생이란 자신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94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운 법이 있는 법.

 돼지

47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산행은 자중자해야 할. 59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이다. 71년생 조금해하지 말아라. 83년생 남의 시간을 어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95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인생사.

## 김상회의四季 명리학에서 행복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행복을 원한다. 현대인들이 도파민 중독에 빠졌다는 소리까지 듣는 것도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음식 운동 놀이 노래 춤 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다닌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 철학도 행복을 추구했고 동서고금의 철학 역시 마찬가지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닮은 부분이 있다. 여러 철학이 지나친 즐거움보다 편안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편안함을 강조하는 또 다른 철학이 있는데 명리학이다. 명리학은 자신을 이해하고 운의 흐름에 순응하며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타고난 운명 속에서 예를 들어 사주에 재성이 약한 사람이 남들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돈을 번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한데 갖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니 돈을 잘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인성印星이 강한 사람은 생각하고 배우는 것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데 숫자로 성과를 내야 하는 재무나 회계 쪽에서 인정받는다 해도 즐거울 수 없다. 재성財星이 약하면 억지로 돈을 쫓아다니기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을 할 때 편안하고 행복하다. 인성이 강하다면 남들보다 깊이 있는 학문이나 전문 분야에 몰두하여 성취감을 얻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행복에 관한 명리학의 가르침은 단순하다. 기운을 알고, 그 기운에 맞게 살면 된다는 것이다. 불火 기운이 강하면 뜨겁게 살아가게 되고, 물水 기운이 강하면 느리게 흐르면 된다. 木 기운의 사람은 성장하며 배워야 하고, 토 기운의 사람은 중심을 잡고 사람을 품어야 한다. 그 편안함이 곧 행복이니 흘러가는 대로 맞춰서 사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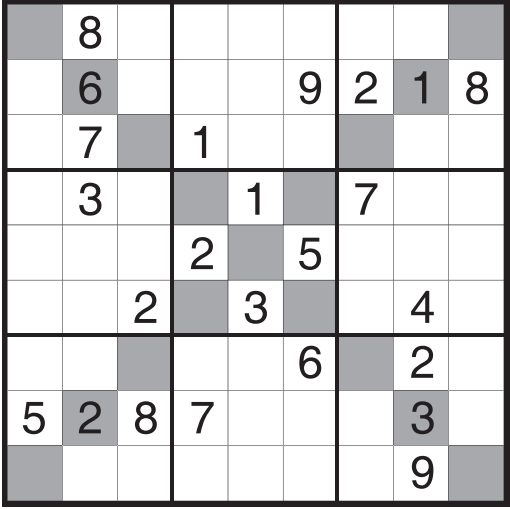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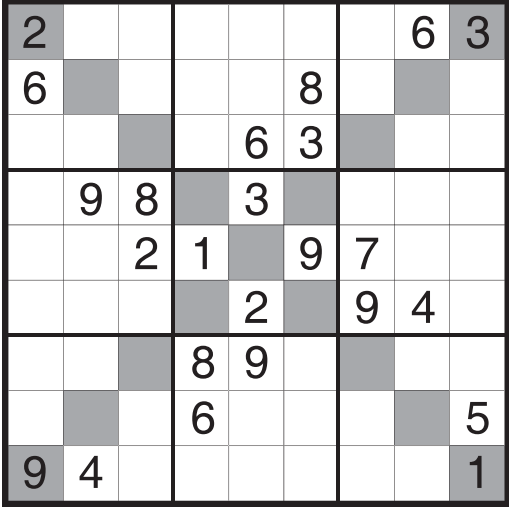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1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2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8	2	9	8	9	7	6
9	6	8	7	1	9	1	2	8
7	2	9	1	6	8	9	2	8
8	7	6	9	2	1	8	9	1
9	8	2	6	8	1	2	9	7
2	9	1	9	8	7	8	6	2
6	8	7	8	9	2	1	1	9
2	1	2	8	7	9	6	8	9
8	9	9	2	1	6	7	8	2

1	6	9	8	2	8	9	7	2
9	8	7	1	6	2	8	2	9
2	2	8	9	7	6	1	8	9
6	7	1	2	8	9	2	9	8
8	8	9	7	2	1	6	1	1
2	9	2	8	1	6	7	8	9
7	9	8	2	8	1	9	2	6
8	1	2	6	2	9	8	9	7
9	2	6	7	9	8	1	8	2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김여진 표혜미 | 엄승윤 류하륜 김상민 최윤재 | 지강혁 엄정욱 한재우 김도경 | 현지수 한혜란 이정원 김정은 | 임영식 강동철 공민규 김한길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yes24 사교계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29일~31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 대학·계열에 따라 수능 반영점수 상이 가산점 활용 등 최적 지원전략 찾아야

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각 대학은 이 기간 중 최소 3일 이상 입학원서를 접수하며, 수험생들은 접수 첫날인 29일부터 실시간 경쟁률 변화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 34만9289명의 19.8%인 6만9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1416명 감소한 규모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이 4만6442명(67.0%)을 선발해 비수도권 대학 2만2830명(32.9%)보다 두 배가량 많다. 정시 모집 인원이 수도권 대학에 여전히 집중된 구조다. 전형유형별로는 수능위주전형이 6만387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실기·실적위주전형 4565명 ▲학생부위주(교과)전형 357명 ▲학생부위주(종합)전형 287명 ▲기타전형 187명 순이다. 정시모집에서 수능위주전형이 압도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군별로는 가군에서 136개 대학, 나군 146개 대학, 다군 130개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험생은 모집군별로 1회씩, 총 3회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 이후에는 한 곳만 최종 등록해야 한다. 군별 전형 일정은 ▲가군 2026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나군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다군 1월 21일부터 28일까지다. 군별 지원 및 합격 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원 전략 수립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유투이미지

## 일부 수능 군·모집단위 변경... 산업경영융합학부 '정원 외 인원'



정원 내 1208명, 정원 외 143명 선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다군' 변경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351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선발인원은 1208명으로, ▲가군 416명 ▲나군 566명 ▲다군 226명을 모집한다. 또한 정원 외 전형에서는 기초생활맞차상위 전형 64명, 농어촌학생 전형 79명 등 총 143명을 선발한다.

올해 가장 주요한 변동 사항 중 하나는 정원 내 모집인원에 대한 수능 군 변경 관련 사항이다. 기존 '다군'에서 5명 선발하던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원에 대해 올해는 '나군'에서 선발이 이뤄지며, 전년도 '가군'에서 선



발하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 인원은 올해 '다군'에서 선발한다.

학사 구조 개편에 따른 모집단위 및 정원 변경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화공학부가 올해는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 단위에서 모집을 진행한다. 또한 기존 신산업융합학과와 K뷰티산업융합학과가 합쳐져 공과대학 산업경

영융합학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산업경영융합학부는 정원 내 모집인원 없이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을 진행하니 유의해야 한다. 사회과학대학융합전공학부는 모집 정원이 지난해 74명에서 76명으로 상향됐으며 이중 정시 '나군'에서 2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 기초생활맞차상위와 농어촌학생 전형도 일부 정시로 선발한다. 기

초생활맞차상위 전형 지원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해야 한다.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는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연속해 이수하고, 해당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또는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 이수하고 해당 기간동안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 정시 계열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및 방법을 살펴보면, 언어중심(A)은 국어 40%, 수학 3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한다. 해당되는 모집단위는 문과대학 전체 학과, 사범대학 중 일어교육과, 교육공학과, 영어

교육과, 예술디자인대학의 의상디자인학과-인문계, 매체연기학과다.

수리중심(B)은 국어 30%, 수학 4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하며, 이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는 이과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융합과학기술원, 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다.

예체능은 국어 45%, 영어 25%를 반영하고, 수학과 탐구 영역 중 반영 점수가 높은 영역을 30% 반영한다. 해당되는 모집 단위는 의상디자인학과-인문계와 매체연기학과를 제외한 예술디자인대학의 학과들,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다.



박종효  
입학처장

## 영어 2등급·한국사 4등급까지 만점... 계열별 수능 반영비율 달라



영어·한국사 '등급별 감점 방식'  
자연계열 과탐 응시자에 가산점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는 정시모집에서 총 2415명(전체모집인원의 44.9%)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수능 위주전형에서 2217명을, 실기위주전형으로 198명을 선발한다. 수능위주전형 모집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7명 감소했다.

경희대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기존의 절대평가 등급을 '수능 영역별 비율 반영 방식'에서 '등급별 감점 방식'으로 전환했다. 영어 2등급까지는 만점 처리해 감점이 없어, 어렵게 출제된 영어 과목의 부담이 적다. 영어 과목은 3



등급 이하, 한국사는 5등급 이하의 경우 총점에서 차등으로 감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인문, 사회, 자연, 예술·

체육 계열의 모집 단위를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이 변경됐다. 인문, 사회, 자연, 예술·체육 계열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 달라 표준점수의 단순 총점이

같더라도,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의 성적에 따라 수능 환산 점수에 차이가 있다.

수능 영역별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탐구 영역은 본교 자체 산출 '백분위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다. 탐구 영역의 백분위변환표준점수는 수능성적 개별 통지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문계열 수능영역을 반영하던 한의예과(인문)는 사회계열 수능영역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한의예과(인문)의 정시 수능 반영 성적은 국어 35%, 수학 35%, 탐구(2과목) 30% 비율로 산출한다.

기존에 인문계열 사회탐구 응시자에 부여하던 가산점은 2026학년도 정시부터 폐지됐다. 자연계열 응시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학탐구 응시

자에게 과목당 4점씩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자유전공학부는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경희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와 대입정보포털(대교협, 대학어디가)에 최근 3년간 정시 입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최근 3년간(2023~2025학년도)의 경쟁률과 총원율, 최종 등록자 70%의 합격선 백분위 점수뿐만 아니라 상위 80%의 수능 과목별 백분위 평균 성적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이과 통합 수능 도입에 따라 최종 등록자의 교차지원을 알 수 있는 수학과 탐구선택과목응시 비율로 상세하게 공개한다.



최진무  
입학처장



# 수능점수 반영 비율 세분화... 자유전공·미래융합 628명 선발



점수에 따라 유리한 모집단위 선택  
조형대학 모든 과 학생부 교과 미반영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전공자율선택제로 628명을 선발한다. 전년도에 경우 가군에서는 자유전공, 나군에서는 미래융합전공(인문, 자연, 예체능)으로 구분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군에서는 자유전공(A) 120명, 자유전공(B) 120명으로 240명을 선발하고, 나군에서는 미래융합전공(A) 146명, 미래융합전공(B) 177명, 미래융합전공(C) 65명을 선발한다.

각 모집단위는 수험생의 수능 표준점수 분석에 따라 유리한 모집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반영 비율이 3종류로



나뉜다. 자유전공(A), 미래융합전공(A)는 국어 40%, 수학 30%, 영어 10%, 탐구(2과목) 20%를 반영하고, 자유전공(B), 미래융합전공(B)는 국어 30%, 수학 40%(기하 또는 미적분 5.0% 가산점), 영어 10%, 탐구(2과목, 과탐 1과목당 5.0% 가산점) 20%로 국어와 수학의 비율과 가산점 반영 여부에

차이가 있다. 반면 미래융합전공(C)의 경우는 국어 50%, 영어 20%, 탐구(2과목) 30%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모집단위의 반영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더라도 입학 이후 전공 선택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표준점수를 잘 분석하고 모집단위의 반영

비율을 잘 적용해 최종 지원 모집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 중 인문·자연계 일반학생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하며, 인문·자연계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를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30%를 반영한다. 단, 자연계열은 수학(기하 또는 미적분), 탐구(과학탐구) 1과목당 표준점수의 3%를 가산점을 부여한다.

수능 영어 영역은 2021학년도와 계속해서 동일한 반영배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으나 5등급 이하부터는 수능환산 총점에서 0.2점씩 감점 적용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만 인정하며, 제2외국어 및 한문은 탐구영역 1과목으로 대체 반영

하지 않는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조형대학 모든 과에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기존에 실기나 면접에 강점이 있었다라도 수능과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1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 실기의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변경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 모든 학생들에게 실기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는 실기 40%, 수능 60%의 일괄합산 전형을 시행하며, 타 학과들은 1단계에서 실기 40%, 수능 60%로 5배수 선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면접 2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조옥연  
입학처장

## 서울 560명·천안 490명 모집...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신설



국가안보학과·실기전형 외 수능 100%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항목별 감점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정원내외 포함 서울 560명, 천안 490명 등 총 1050명을 선발한다.

서울캠퍼스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560명을 선발한다. 나군 수능전형으로 488명을 선발하며, 정원의 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전형 52명,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20명을 선발한다. 국가안보학과와 정원내 실기·실적(실기전형)은 수시모집 미충원 이월인원에 대해 선발한다.

성적 반영은 수능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모두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100%다. 단, 국가안보학과는 수능 80%, 체력검정 20%, 체력검정(합/불합 판정)으로 반영된다. 실기전형의 경우 학과별로 반영 비율이 상이하므로 모집요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천안캠퍼스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490명을 선발한다. 가군 수능전

형으로 6명, 나군 수능전형으로 35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실기전형은 나군으로 130명을 선발한다. 가군 수능전형의 경우 사진영상미디어전공에 한해 선발하며, 이외 학과는 모두 나군으로 선발한다. 정원의 모집은 수시모집 및 이월인원에 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천안캠퍼스도 서울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지로 수능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모두 수능 100%가 반영된다. 실기전형의 경우 수능 40%, 실기 고사 60%로 반영되며, 올해 신설된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100%로 5배수 선발, 2단계에서 서류평가 10%와 면접고사 90%로 진행된다. 단, 정원의 모집으로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에 따라 선발되니 참고해야 한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백분위로, 영어 영역은 등급별 점수로 반영한다. 탐구과목의 경우 백분위 및 환산점수가 높은 상위 1개 과목이 반영되며,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은 취득 등급에 따라 전형총점(1000점) 기준으로 계열에 관계없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인문계열(자유전공 예체능계열 포함)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 자연계열

(애니메이션전공 포함)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20%가 반영된다. 단, 자연계열 지원자 중 수학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수학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며, 과학탐구 응시자는 탐구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예체능계열(자유전공 예체능계열 및 애니메이션전공 제외)은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과목 중 백분위 및 환산점수가 높은 상위 2개 영역을 반영해 각 40%, 탐구 20%를 반영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기재항목에 따라 전형총점에서 감점된다. 천안캠퍼스 학생부종합전(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및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의 경우 서류평가 시 정성평가로 반영된다.



이현우  
입학처장

## 자유전공 210명·첨단분야 51명 모집... 인문·자연 수능 100%



총 620명 선발... 창의융합대학 261명  
일부 자연계열, 과탐 최상위 가산점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반학생전형(정원 내)으로 가군 370명, 나군 208명, 다군 42명 등 총 620명을 선발한다.

창의융합대학은 가군 자유전공(210명), 나군 첨단분야전공(51명)을 모집한다. 창의융합대학 학생들은 1학년 동안 폭넓은 학문적 탐구와 전공탐색 과정을 거쳐, 2학년 진급 시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한다.

자유전공은 간호·사범 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 첨단분야전공은 첨단분야 전공(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



부, 화학·에너지융합학부, 바이오헬스융합학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AI융합학부)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인문·자연계열은 가군·나군에서 모집하며, 예·체능계열은 가군·다군에서 각각 모집한다.

일반학생전형(정원 내) 인문/자연계열은 수능성적(100%)만을 반영하고 예·체능계열은 학과에 따라 수능성적(55~60%)과 실기고사 성적(40~45%)을 반영해 선발한다.

수능성적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며

수능 지정영역 반영비율은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는 4개 영역(국어·수학·영어·탐구)을 필수 반영하며 예·체능계열 모집단위는 상위 3개 영역 선택 반영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정원 내 전형의 일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는 과학탐구 최상위 성취한 과목에 추가 가산점(10%)을 부여하니 모집요강을 확인해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지정영역 미응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영어영역은 등급에 따른 백분위 환산점수를 반영하고 탐구영역은 2과목 백분위 점수 평균을 반영하며 제2외국어 또는 한문으로는 대체 불가하다. 또한 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모집단위와 전형별로 반영하는 탐구영역이 다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원자격 필수인 한국사의 경우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은 68명,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30명, 기회균형Ⅱ전형(정원외) 15명을 모집한다.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기회균형Ⅱ전형(정원외)은 가군·나군에서 수능성적(100%)만을 반영해 선발하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정원외)은 수시모집 해당 전형 미충원 인원 이 있을 경우 나군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노신경  
미래인재처장





흑백요리사2  
식품 컬래버 열기  
불 지핀다  
니



Life

상성  
'이건희 컬렉션'  
세계에 알려  
L2



## 계열 통합선발 확대... 8개 첨단학과·통합계열 309명 선발



총 1185명 선발... 첨단융합계열 신설  
군 계약학과 특별전형 설치·운영

세종대학교(총장 엄중화)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반학생 전형(가/나/다군) ▲군계약전형인 국방AI융합시스템공학/국방AI로봇융합공학/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가군) ▲사이버국방 특별전형(나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가/나/다군)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가/나/다군) ▲특성화고교졸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1185명을 선발한다.

학과 선발 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경상호텔관광계열·자연생명계열·IT계



열·공과계열·첨단융합계열(다군 신설)로 계열 통합선발을 실시하며, 자유전공학부(무전공) 역시 다군에서 40명을 선발한다. 모집군별로는 가군 351명, 나군 567명, 다군 267명을 선발한다.

세종대는 정시모집에서 양자지능정

보학과, 첨단융합계열 등 2개 첨단학과 및 계열을 신설해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AI로봇학과,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 지능정보융합학과,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와 함께 총 8개

첨단학과 및 통합계열 선발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309명을 선발한다. 다군에 신설된 첨단융합계열로 입학할 경우,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AI로봇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 중 학과를 선택해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해병대와의 협약을 통해 설치 및 운영되는 계약학과 선발 전형인 국방AI로봇융합공학전형은 2026학년도 신설됐으며 가군에서 6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수능으로 4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평가, 체력검정 및 해병대 주관 전형(합/불 판정)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 외에 세종대는 군 계약학과로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 사이버국방 특별전형을 운영

하며 각각 공군 및 해군, 육군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이다.

일반학생 전형 인문·자연계열 및 창의소프트학부는 수능 100%를 반영해 선발하며, 예체능계열(창의소프트학부 제외)은 수능 성적 외에 실기고사 성적과 학생부(교과) 성적을 반영한다.

군계약학과와 경우 1단계에서 수능 100%를 통해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군 주관 전형을 실시하므로 모집요강을 통해 자세한 전형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군계약학과와 경우 정시 전형 중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변재문  
입학처장

## 가·나·다군 모두 선발... 장학혜택 확대·첨단학과 신설



총 1944명 선발... 선택 기회 넓혀  
반도체·첨단 분야 핵심인재 양성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4427명)의 약 44%에 해당하는 1944명을 선발한다. 가군, 나군, 다군 모두에서 학생을 선발해 수험생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규모 장학제도 개편과 첨단학과 신설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앙대는 수능일반전형을 통해 1704명을 선발한다. 대부분의 모집단위는 학과별 모집을 진행하지만, '다'군의 창의ICT공과대학은 전공개방으로 모집한



다. 해당 모집단위 합격생은 입학 시 전자전기공학부와 융합공학부 중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2학년 진입 시 적성이 맞지 않을 경우 학부 변경 기회도 부여받는다.

수능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은 모집단위별로 다르다. 인문계열의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는 국어 30%·수학 40%·사회/과학탐구 30%를 반영한다. 그 외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는 국어 35%·수학 30%·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한

다.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30%·수학 35%·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해 선발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선택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으나, 인문대학 및 사범대학 지원자가 사회탐구를 응시하거나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학탐구를 응시할 경우, 해당 탐구과목 변환표준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2026학년도 정시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 분야 경쟁력 강화다. 중앙대는 반도체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하고 나군에서 10명을 선발한다. 또한, AI학부(가군) 모집인원을 기존 18명에서 22명으로, 산업보안학과(나군)를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여 AI·SW 융합형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올해는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혜택이 확대됐다. 수능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인재장학'은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합 288점 이상(영어 1등급)인 대상자에게 ▲4년 등록금 전액 지급 ▲연 300만원 학업지원비 지급 ▲생활관 신청 시 우선 입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설된 '첨단인재장학'도 눈길을 끈다. 신설 학과인 지능형반도체공학과와 경우 총원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생 전원에게 4년 등록금 전액을, AI학과, 산업보안학과, 첨단소재공학과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4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상명  
입학처장

## 모든 전형서 수능 100%... 전공자율선택 선발인원 확대



자연계열도 한국사 가산점 반영  
자유전공학부, 전공선택 자유 보장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이하 한국외대)가 올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3733명)의 42.3%인 1578명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정원 내 일반전형 1393명,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5명으로, 군별로는 일반전형 가군 272명(서울캠퍼스 187명, 글로벌캠퍼스 85명), 나군 688명(서울캠퍼스 413명, 글로벌캠퍼스 275명), 다군 433명(서울캠퍼스



스 99명, 글로벌캠퍼스 334명)이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나군 50명, 다군 51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나군 42명, 다군 42명이다. 모든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한국외대는 정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형방법 간소화와 전형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전형은 물론,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까지 수능 100%를 실시한다.

모집 단위의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아 수험생은 수학 영역의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탐구 영역의 사회/과학탐구 선택에 제한 없이 원하는 모집단위 모두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자연계열 응시자도 한국사 영역을 등급에 따른 가산점 형식으로 반영하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이 된다.

한국외대는 지난 입시부터 입학시 특정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재학 중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자율선택 통합모집단위를 신설했으며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통합모집단위의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전공자율선택 통합모집 규모는 자유

전공학부(서울, 글로벌) 325명(9.34%), 단과대학·계열별 통합모집 511명(14.68%)의 총 836명(24.02%)으로, 이 중 자유전공학부(서울, 글로벌) 90명과 단과대학·계열별 통합모집 511명 전원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자유전공학부 및 단과대학·계열별 통합모집 단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입학 후 2학년이 되는 시점에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가능한 학과(부) 중 본인이 원하는 학과(부)에 100% 배정받을 수 있어 전공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정석오  
입학처장